

목차

해외소식

- 04 **나마스떼, 등게스와리(인도)**
 가난을 함께 해결하려는 가난한 사람들 | 김재령
- 09 **살라맛, 민다나오(필리핀)**
 책이 희망입니다 | 배명숙
- 14 **야유보완, 스리랑카**
 내전이 종식된 이곳 스리랑카에도 새로운 희망들이 자란다 | 오성근
- 18 **쫄리읍쭈어, 캄보디아**
 캄보디아에서 온 편지 3 | 정훈재
- 21 **아빠 까바르, 인도네시아**
 “알라~후아크바르? 알라~후아크바르? 하~일라~하일랄라~?” | 임희성

국내소식

- 26 **함께 나누는 사랑**
 애광원 장애인 경주 나들이 | 이현영
 JTS 북한 취약계층 지원 물품 선적식 | 편집부
- 35 **JTS가 만난 사람**
 자원봉사자 인터뷰 “나눔은, 물이 흐르듯 자연스러운 것”

나눔회원소식

- 38 **활동터 소식**
 인도 • 캄보디아 • 필리핀
- 45 **나눔회원 알림판**
 새나눔회원 • 특별후원금 • 나눔저금통

하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기존의 질서에 길들여지지 않는 자유스러움이 있고, 새로운 질서와 체계를 창조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가난을 함께 해결하려는 가난한 사람들

3년 가뭄 끝에 희망이 보이는 동 게스와리

올해 동게스와리의 여름은 유난히 길다. 이맘때가 되면 한국의 가을처럼 사람이 살아가기 적당한 기후가 되어야 하는데, 한낮에 35도 가까이 된다.

이정도 기온이면 인도에서 덥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마을 주민들이 생기 있고 활기 차게 삶을 살아가기에 더운 날씨임에는 틀림 없다. 이런 긴 여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논에 벼가 익어가는 모습을 보고 또 수확할 생각에 희망에 젖어 있다.

전형적인 농촌 마을인 이곳 동게스와리에서 3년간 가뭄이 들어서 벼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했다. 벼농사를 못 지으니 잘사는 사람도 힘들었지만 남의 논 소작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가난한 마을주민에게는 특히나 힘든 시절이었다.

일거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올해 거의 모든 논에 벼가 자라고 이 넓은 논의 벼 수확은 가난한 소작인들의 일거리가 된다. 가뭄이나 홍수, 한파 등은 자연 현상일 뿐이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생존이 달린 문제이다. 올해 풍년이 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자연 현상의 덕을 충분히 맛볼 수 있으면 좋으련만....

새로운 가능성에 열려 있는 마을 일꾼

마을 주민들이 하나씩 수자타 아카데미로 온다. 젊은 사람들은 서구식 옷을 차려 입고, 남자 노인네와 여자들은 인도 전통 복장 차림새다. 이 사람들은 JTS에서 초청을 한 마을 일꾼들이다.

마을 일꾼 중에는 동네에서 많이 배우고, 경제적으로 잘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의 마을



일꾼들은 보통의 주민들이다. 그들 자신은 자기가 마을 일꾼인지도 모르고 마을 일꾼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다.

JTS 마을개발부에서 초청을 하니 그냥 온 사람들도 상당하다. 그리고 초청받은 사람을 따라서 덩달아 온 마을 주민들도 많다. 한 쪽에서는 갓난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그보다 조금 더 철이 든 아이들은 낯선 사람이 많아서인지 울어버린다.

인도 JTS 건축부를 6년 운영해온 나로서는 마을 일꾼들의 이런 모습이 질서와 체계가 없어 보이고 시끄럽고 산만하게 보였다.

건축부 노동자들은 질서와 체계가 있고, 계획과 보고가 나름 일상화되어있고, 회의 시간에는 굉장히 집중을 하게끔 나에게 길들여졌다. 무엇인가 나에게 익숙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기존의 질서에 길들여지지 않는 자유스러움이 있고, 새로운 질서와 체계를 창조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또, 마을주민들이 인도 관공서에

동게스와리의 가난은 한편으로 돈이 적게 드는 마을을 만드는 것이고,
한편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인데
우선 돈이 적게 드는 마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서 일자리를 만들어보자.



가면 말도 제대로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를 많이 보고 들어서인지 시끄럽고 산만한 것은 JTS를 권위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방증인 것 같아서 안도감도 들었다.

가난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

동게스와리 주민들의 가난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교육비인데 자식이 최소 대여섯 명 이상인데 이 많은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려면 부모의 허리가 휠 수밖에 없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JTS가 운영하는 수자타 아카데미에서 무상 교육과 무상 급식 및 학용품, 옷 등 학생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을 하니 딱 다행이다.

두 번째는 약값인데, JTS에서는 지바카 병원을 운영한다. 이곳에서는 동종 요법(인체에 질병증상과 비슷한 증상을 유발시켜 치료하는 방법)으로 사람을 치료하는데 시간은 걸리지만 부작용이 없고 병의 근원을 치료해주는 좋은 치료법인데 주민들은 치료의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는 동종 요법을 선호하지 않는다.

대신 주민들은 노동자 하루 일당의 몇 배가 되

는 약값을 지불하면서 자격증도 없는 마을 의사에게 자신의 몸을 맡긴다. 부작용도 큰 문제이지만 감기처럼 작은 병의 약값이 무려 노동자 하루 일당의 2배 가까이 되니 감기보다 더 중한 병을 앓게 되면 빚을 낼 수밖에 없고 그 빚은 일 년만 되면 이자가 원금이 된다.

결국 가난한 주민들은 정부에서 지원받은 손바닥만 한 자신의 피 같은 땅을 팔 수밖에 없다.

세 번째는 농사에 드는 비용이다. 인도도 씨앗과 비료, 농약 값은 하루가 다르게 가파르게 오르는데 농산물 값은 매우 더디게 오른다. 그러다보니 농사를 많이 지으면 수익이 반비례로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농사 외에 할 것이 없어서 농사를 짓지만 농민들의 한숨은 매년 증가한다. 가뭄이 들어서 한숨이 나오고, 인건비가 올라서 한숨이 나오고, 농자재 값이 올라서 한숨이 나오고, 농산물 값이 오르지 않아서 한숨이 나오고 농민들에게는 한숨 나올밖에 없는 것이다.

네 번째는 주택비다. 돈 있는 사람들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람들은 벽돌집에 콘크리



트로 지붕을 하였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초가집인데 3년 간 가뭄이 들어서 벼농사를 못 지으니 초가집을 었힐 벧단이 없다. 그래서 지붕 뚫린 집에서 하늘을 천장삼아 살아간다. 이들에게 가난은 불편함일 뿐이다.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동게스와리 가난의 고통

동게스와리 마을 일꾼 회의는 동게스와리 주민들의 가난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을 해결하려고 만든 자리였다. 나는 마을 일꾼들에게 오랜 시간 심사숙고한 나의 생각을 진지하면서 힘차게 말했다.

“동게스와리의 가난은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 민간요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저렴하게 약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집수리에 재능 있는 사람은 저렴한 주택에 대해서 연구하고, 비료와 농약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서로의 성과를 공짜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 우리의 가난은 해결할 수 있

다.” 그리고 “동게스와리의 가난은 한편으로 돈이 적게 드는 마을을 만드는 것이고, 한편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인데 우선 돈이 적게 드는 마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서 일자리를 만들어보자.”라고 하니 더위에 지친 마을일꾼들도 눈빛이 반짝거린다.

가난을 함께 해결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공동체

나는 보통의 사람이라면 자기 자식을 학교에 보내고 싶고, 저렴한 가격에 약을 사서 가족들을 돌보고 싶고, 자신이 열심히 일한 노동의 대가를 받고 싶어 하고, 최소한 비라도 피할 수 있는 집에서 살고 싶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소박한 바람도 가난한 사람에게는 벅찬 꿈일 수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서로의 고통을 너무 잘 안다. 하지만 혼자서 해결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그런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기에 가난의 고통은 함께 풀어야 하고 함께 돌보고, 협동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데 사람 사는 정이 없는 마을이 되거나, 가난에 찌들어서 제 부모와 제 자식도 돌볼 수 없는 마을이 될 수 있다.

나와 인도인 활동가들이 마을 일꾼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고 같은 꿈을 꾸다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꿈-평화롭고, 풍요롭고, 서로 돌보는 동게스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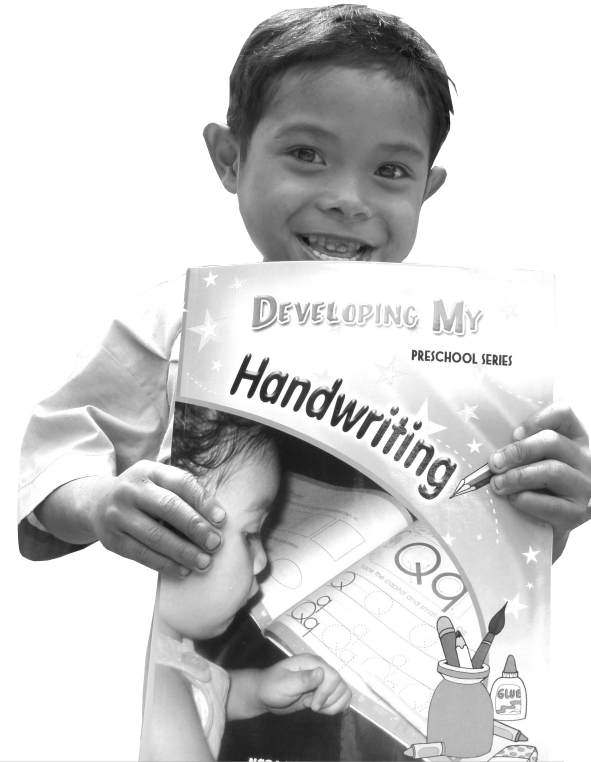
마을일꾼 회의가 끝나고 3주 동안 마을 일꾼 집을 방문하였다. 남편이 공사장에서 떨어져 죽어서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사람, 아파서 병원비를 많이 써서 자식들에게 밥을 얻어먹지 못하는 노인, 초가집이 무너져서 비닐로 영성하게 이은 어머니회 회원, 글자를 아느냐고 물으니 수줍게 학교 근처에도 못 갔다고 대답하는 대부분의 여성 일꾼들, 남편이 아파서 자신이 하루 일을 안 나가면 하루를 굶는다는 여인, 몇몇 마을일꾼은 사는 형편도 괜찮고, 학교도 고등학교 이상 다녔지만 상당수의 마을 일꾼은 “낫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우리 속담처럼 문맹에다가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쁜 전형적인 동게스와리의 가난한 주민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서 자신의 가난을 해결하려고 한다.

솔직히 지금의 마을 일꾼들이 얼마나 오래 활동을 할지, 또, 동게스와리의 가난을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현재 마을개발부에서 활동하는 인도인 젊은 활동가들도 처음에는 가난하고 저학력에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쁜 보통의 주민들과 다를 바가 없었는데, 나와 같은 꿈을 꾸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함께 문제를 풀어가다 보니 지금 활동가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와 인도인 활동가들이 마을 일꾼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고 같은 꿈을 꾸다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꿈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평화롭고, 풍요롭고, 서로 돌보는 동게스와리 사람들의 공동체” ✿

글 김재령 | 인도 J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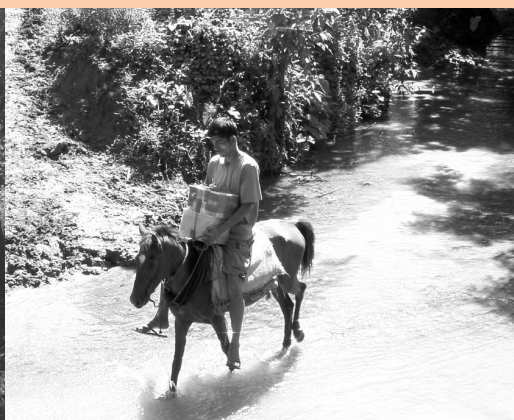


책이 희망입니다.

‘나무를 산 길목에 좀 심으면 어떨까요? 그들도 제공해 주고 길을 때 이렇게 답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학교에 오르는 산길을 건다가 뜨거운 땀방울에 입이 바짝 타들어가고 발걸음이 무겁다고 느껴질 때 앞서 걷던 지역정부 협력자 제시에게 넌지시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JTS가 이번에는 영어와 수학책을 우선 지원하고 순차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곳 발주인과 통행하는 사람들, 말 주인들이 나무 심는 것을 찬성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매일 비가 오고 햇볕에 길이 잘 말라야 하는데, 나무가 있으면 그늘에 길이 잘 마르지 않고 질척거리어 통행 하는데 불편한 것이 주요 이유입니다. 발주인은 자신의 밭에 옥수수나 기타 작물을 심는 것을 원하지 나무 심는 것은 꺼려 한다고 합니다. 있는 나무마저 지나 다니는 말 주인들이 가지를 쳐달라고 요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질척거리는 땅이 보이고, 나에게 는 나무 그늘이 보입니다. 사물을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그 길에서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연구를 해 보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들도 제공하고 땅도 질척거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말이죠.

교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교과서 없이 수업 하는게 가능하구나 한가’ 라고 생각하는 우리들과 ‘교과서 없이도 선생님이 수업을 잘 지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교육청 관계자 사이의 좁힐 수 없는 간격.

수업 시간에 교과서가 없으면 선생님께 야단을 맞는다? 이곳 민다나오 오지 마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가지고 다닐 교과서가 없는 상황에서 이 아이들은 무엇을 갖고 가지 않으면 선생님께 야단을 맞을라나요?



현장의 선생님은 어떤지 물어보았습니다.

교과서가 있으면 좋으나 현실적으로는 부족한 상황이고 그나마 선생님께서 지원되는 교과서마저도 넉넉하지 않은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 JTS가 교육청의 역할을 해보는 건 어떤가.

이러한 맥락에서 교과서 지원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지역 교육청을 찾아가 교과서 지원 계획에 대해 문의하고 지원을 요청하는 일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진행하곤 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다 지급하지 못하고 실상은 선생님이 교과서 없이도 수업을 할 수 있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는 답변을 들곤 하였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당연히 지급 받아야 할 교과서가 이렇게 중요치 않게 되는 상황에서 JTS는 고민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요청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원을 할 것인가,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우선 어떤 교재가 적합한지, 또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과목과 그 샘플을 얻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인근 도시의 초등학교에서 교과서 사진을 찍어 오기도 하고, 선생님들에게 지원되는 교과서 이름을 물어보고, 다물록 지역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있는 교재 샘플 수령까지 두어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역정부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곳인 다물록 시 교육청 관계자에게 도시의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재 샘플을 받아서 검토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JTS에서 지원하는 학교 선생님들과의 미팅을 통해 교과서 지원 계획을 공유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JTS가 이번에는 영어와 수학책을 우선 지원하고 순차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제는 실행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교과서 지원 프로젝트.

마닐라에 있는 출판사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책의 재고가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1,200여명의 학생들에게 2,400권의 책을 선물하는 것이 혼자 힘으로는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여러 사람들의 지원과 노고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재고가 많다네요. 우리가 지원하려는 학생은 총 1,200여 명이었고 주문을 완료하고 마닐라에서 이 곳 민다나오로 큰 배를 이용해서 배달이 된 후 우리는 트럭을 가지고 가서 싣고 센터로 돌아옵니다. 무겁기도 하고 비마져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산간 오지에 있는 학교에 책을 주는 것도 만만치 않겠다는 상상을 하면서 내립니다.

학교별로 포장하는 일도 세심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책이 비에 젖지 않게 하려면 비닐로 덮어 매는 작업을 수차례 반복하고 학교 이름과 숫자를 기록하는 등 포장하는 작업에 여러 사람의 손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힘들더라도 이렇게 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JTS가 민다나오의 교육청 역할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구나 하는 것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누가 책을 주면 어떠랴, 아이들이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고 행복해한다면 누군들 좋지 않으랴.

이들에게 책을 전달하였습니다. 준비하는 것만큼 배달하는 것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손을 빌려야 했습니다. 영어, 수학 교과서는 기나긴 여행을 시작합니다.

트럭을 타고 말과 보트로 강을 건너는 것은 기본이고 아이들과 장정이 머리와 어깨에 이고 다리를 건너 한 명 한 명의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거치는 기나긴 대장정입니다.

오버루킹에 가는 날은 전날 저녁부터 체기가 있어서 산을 오르는 것이 쉽지 않고 부담스럽기까지 한 날이었습니다. 그래도 교과서를 짊어지고 아주 빠른 속도로 가는 청년 리더만큼은 아니지만, 아주 천천히 산을 오르고 올라 어느새 마을에 도착하였습니다.

학교에 도착하니 교실마다 수업하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오고 편안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출석률이 아주 좋은 편이었고, 개별적으로 영어와 수학 교재를 배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 좋다는 반응을 보였고, 잠깐 인터뷰를 했던 학생과 학부모는 앞으로 결석을 하지 않을 것이

고, 행복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학부모, 마을 주민들, 선생님과 아이들의 다소 들떠 보이는 모습이 좋아 보였고, 어느새 내 몸의 컨디션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마을에 다녀오는 것이 단순한 일은 아닌가 봅니다. 약을 먹은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니 말입니다.

때로는 산간오지 마을에 다니는 것이 힘에 부치기도 합니다.

사라와곤은 우리가 지원하는 물품이 매번 학교에 늦게 도착해서 시간이 지체되곤 하였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책을 지원하고 보람을 느끼기는 커녕 오르는 길이 불편하고 맘대로 안되는 마을 사람들이 밍고 짜증스럽기도 하였습니다.

발루드에 가는 날 역시 기운이 나지 않고 덜컹 덜컹 거리는 트럭 만큼이나 마음도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시간여 후 뚜곳이라는 마을에 도착했을 때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면서 기분이 썩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학교에서 고학년 학생 20여명이 내려와서 책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발루드는 리더를 중

심으로 마을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곳인데 아이들도 참 용맹스러워 보였습니다. 이런 아이들과 함께 오르면서 중간에 쉬어 가는 아이들에게 “까포이 야(힘들지)?” 이렇게 묻고 또 고개를 끄덕이는 아이들이 고맙고 기특해 보이는 날이었습니다.

1,200여명의 학생들에게 2,400권의 책을 선물하는 것이 혼자 힘으로는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여러 사람들의 지원과 노고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관점이 다른 것을 확인하고 달라도 괜찮다는 것을 느껴가면서 일했던 이번 교과서 지원 프로젝트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살라맛. ✨

글 배명숙 | 필리핀 JTS

수혜자가 되어서 앉아서 받는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화장실을 만들면 좀 더 주인의식을 가지고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고 또 추후에 자신들의 주택을 보수하거나 다시 지을 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할수 있을 것이다.

내전이 종식된 이곳 스리랑카에도 새로운 희망들이 자란다.

이제 이곳 스리랑카에 온지도 어느새 100일이 훌쩍 넘었다.

찌는 듯한 더위와 가뭄은 이제 거의 끝나고 우기가 올 조짐이 보이고 있다.

현재 스리랑카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은 모두 3곳이다. 현재 상주하고 있는 Islander Center가 있는 이곳 아누라다푸라 지역(Anuradhapura District)과 이곳에서 좀 더 북쪽에 위치한 바부니아 지역(Vavuniya District), 동쪽 해안의 트링코말리 지역(Trincomalee District) 이렇게 3곳이며 9개 군에 걸쳐서 농업기반 시설 보수, 생활환경 개선, 농자재 지원을 하고 있다.

Anuradhapura는 우리 나라로 따지면 “경주”와 같은 고대 왕국의 수도가 있던 곳이며 많은 유적지가 있다. 스리랑카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있으며 농업을 주산업으로 하는 지역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매우 건조한 지역인데 최근의 기상 이변 등으로 인하여 물부족 문제가 매우 심각한 편이다. 특히 올해 수해로 농업용 저수지와 저수지 주변 도로 등이 유실되어 일부 지역의 경우 농업 용수 부족이 더욱 심각해진 상황이다.

이에 JTS에서는 KOICA(한국국제협력단) 지원을 받아 현지 NGO인 Sewalanka Foundation과 협력하여 저수지, 관개수로, 마을도로 등을 새로 만들거나 보수하고 있다.

그리고 위생시설 개선을 위해 Anuradhapura District내에 Mahlindawewa, Ettikuluma, Ehatuwagama 등 3개 군에 걸쳐 화장실 총 50개소를 새로 건설하고 식수 및 관개용 우물 18개소를 신설 혹은 보수하고 있다.

모든 사업은 JTS에서 자재와 숙련된 기술자를



제공하면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여 스스로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기본적인 것은 우리측에서 제공한 기본적인 설계를 따르지만 그들의 선택에 의해 일부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일정량의 자재와 6일치 기술자 임금만 지원하여 나머지는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하였다.

수혜자가 되어서 앉아서 받는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화장실을 만들면 좀 더 주인의식을 가지고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고 또 추후에 자신들의 주택을 보수하거나 다시 지을 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업자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여 과다하게 지불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수 있을 것이다.

또 이 위생 시설은 특히, 여성과 어린이, 노약자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이 곳에선 용변을 보기 위해 정글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 야간일 때 주변에 많은 야생동물이 있어서 상당히 위험하고 화장실의 경우 임시로 만든 큰 구덩이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그 구덩이에 빠져서 다치기도 한다고 한다.

화장실 벽 페인트 색깔이나 문 색깔이 그들의

일을 하는데 있어서 참 시간이 늘 촉박하다. 우기가 다가오고 있고 정부의 허가 문제로 일부 지역에선 공사 진행이 더디게 되기도 하여 늘 시간에 쫓기고 마음이 급하다.

선택에 의해 제각각이지만 그 들 스스로의 손에 의해 또 그들의 선택에 의해 만들어진 화장실에 애정을 가지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모습을 보면 참 보람을 느낀다.

이 지역은 스리랑카의 대표적인 건조 지역이다. 공사전 있었던 우물의 상태는 그냥 땅만 파거나 일부 벽돌만 올라간 수준이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부유물들이 우물 속으로 들어가 많이 오염되어 있었고 우물 벽체가 없어서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는 사고의 위험성이 있었다. 또, 건기 때는 우물이 거의 말라있어 사람들은 매일 물을 뜨기위해 1~2 km를 가서 큰 저수지나 강에서 떠오는 큰 불편들이 있었다.

그래서 18개 우물에 걸쳐서 공사를 시작하였고 화장실 건설에서와 마찬가지로 근처에 우물을 사용하는 가구에서 자발적으로 공사에 참여하게 하였다. 우물마다 한 명 또는 두 명의 숙련기술자를 지원해주고 자재를 지원해주면 주민들이 직접 그들을 도와서 한다.

온 가족이 농번기 임에도 불구하고 짬을 내어서 우물 공사를 한다. 특히, 조그만 꼬마 녀석들도 고사리 손으로 거드는 모습을 보면 참 귀엽고 대견하다.

Vavuniya의 경우는 과거 타밀반군과 정부군이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지역 중에 하나로 현재 화장실과 우물을 공사 중인 지역은 그 두 세력의 경계선에 위치한 곳이다.

과거 정부에서는 이 지역의 주민들을 강제로

타 지역으로 소개시키는 이른바 “전벽청야” 작전을 실시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고향을 등져야 했다. 26년간의 내전 종식 후 그들은 현재 자신들의 고향마을로 돌아오고 있지만 돌아온 고향은 내전에 의해 파괴된 그 것이었다. 집은 파괴되었고 우물들은 버려졌다.

많은 사람들이 나무와 흙, 그리고 양철 슬래브를 엉성하게 연결해서 임시로 지어진 집에 살고 있다. 그래서 정부와 다른 NGO의 지원하에 재정착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위생환경 개선을 위해 이 Agbopura 마을에 30개의 화장실을 아누라다푸라와 같은 방식으로 건설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다.

재정착사업이 완료되면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한 많은 학생들이 돌아오게 된다. 그 돌아오는 학생들을 맞이하기 위해 학교를 재건하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학교 우물에 대한 보수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동부 해안에 위치한 Trincomalee는 세계적으로 아름답기로 소문난 해변이 있는 곳이다. 이 곳은 싱할리, 타밀, 무슬림이 각각 1/3씩 살고 있는 특이한 지역으로 곳곳에서 불상과 힌두신상과 마스지드와 예수상이 어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곳이다.

하지만 이곳 또한 과거 치열했던 내전 지역 중 하나로 도심지가 아닌 농촌지역에선 우물이나 관개수로가 파괴된 채 방치되어 있었다. 농촌 지역의 경우 과거 반군의 영향력이 강하게 미치던 지역이라서 정부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지원을 사실상 하지 못하고 있었고, 내전 종식 후 이제 막 지원이 시작되는 단계이다.

현재 Trincomalee District내 Aiyannarkulam, Keerandakulam, Maravaddakulam 이 3개 군에서 관개수로 정비 사업을 하고 있고, Serunuwara, Dehiwatta, Somapura 3개 군에서는 식수 및 농업 용수용 우물정비 사업을 하고 있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참 시간이 늘 촉박하다. 우기가 다가오고 있고 정부의 허가 문제로 일부 지역에선 공사 진행이 더디게 되기도 하여 늘 시간에 쫓기고 마음이 급하다.

가끔은 비라도 내리면 “오늘은 공쳤구나”하는 마음에 하늘을 원망할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 하지만 이 곳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 비는 너무나 고마운 비이다. 비로 인해 사람들이 물을 얻을 수있고 메마른 땅을 적셔주어 내년 농사가 잘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한편으론 무척 기쁘기도 하다. 즉, 비가 와서 공사가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비가 와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을 줘서 좋고 비가 안오면 공사를 할 수 있어서 좋은 것이다. 마치 소금장수 아들과 우산장수 아들을 둔 어머니처럼 말이다.

우리가 3년의 전쟁의 비극을 겪었듯, 이들도 26년간의 내전으로 인해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죽이고 죽임을 당했다. 그 상처들을 치유하는데는 아마 많은 세월이 필요할 것이다.



내전이 종식된 이곳 스리랑카에도 새로운 희망들이 자라난다. 버려졌던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곳을 재건하는 사람들, 다시금 싱할리, 타밀, 무슬림이 함께 평화롭게 어울려 살게 되는 그 날이 오기를 간절히 빌어본다. ✿

글 오성근 | 스리랑카 JTS

캄보디아로부터 온 편지 3



안녕, 연잉

오늘처럼 둥근 달이 차오르는 날이면,
내 마음엔 지난 날 연잉과의 속삭임 고
스란히 차올라. 타인의 불행 위에 나의
행복을 쌓지 않겠다는 약속은 별빛이
되고, 괴로움이 없는 사람 자유로운 사
람이 되어 이웃에 잘 쓰이겠다는 다짐
은 달빛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감싸는
우리가 되자는 그 이야기가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이끌도록 기도할 거야. 두
손을 모은 지금 난 이미 당신과 함께야.

한국의 한가위 일정을 마친 달님이 동남아 원
정길에 오름과 동시에 캄보디아에서는 15일
간의 뽕춤 명절이 시작 돼. 보름동안 달력이
빨갳지는 않은데, 캄보디아 방방곡곡은 절간
을 중심으로 뽕경게 돌아올라.

이 주간 하얏게 불태우신 달님이 '그래 올해도
수고했다. 난 이제 그만 들어가 보련다. 내년
에 또 보자.' 시며 퇴장하시는 열다섯째 날이
되어서야 사람들은 떠나는 달님을 고이 보내
나빌 레며 가장 찢히고 찢히는 마음으로 감사
와 안녕을 기도하며 대미를 장식해. 자연스레
다음날 하루는 평일임에도 너무나 휴일 같은
그런 날이야. 그럼 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백문이 불
여일견이라는 옛말을 따라 캄보디아 사람들을
따라가 볼까?

뽕춤 기간에는 전통의상으로 한껏 멋을 낸
아낙네들의 아름다움을 거리 곳곳에서 감상
할 수 있어. 하얀 상의와 대비되는 각양각색의
치마의 물결은 설레는 마음 아가씨 마음을 고
스란히 반영한 듯 해. 덩달아 내 마음까지 설
레어 났을 잃고 바라보면 곤란한 과보가 따를
수도 있으니깐 시선 처리에 주의하며 그 물결
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 하겠지?
한국에서는 절 가려면 봉봉 차타고 가서, 내려
서, 킁킁 걸어서 계단 오르고 산 오르고 뭐 그
렇게 굉장히 난처하잖아? 그래서 부모님이 절
에 가자시면 차라리 등산 갈 마음을 내는 것이
내가 편하잖아?
그런데 캄보디아는 마을 나고 절 났는지 절 나



고 마을 났는지 분간이 어려울 정도로 마을
속, 사람들 사이에 절이 자리하고 있어. 한참
동안 물결을 탈 준비하고 맘을 단단히 먹었던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이보다 더 편할 수는 없
는 상황이 그저 감사할 따름이야.
지척에 자리하고 계심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모아 합장을 하고 일주문을 지나 절에 들어서
면 수많은 탑들과 부속 건물들이 한눈에 들어
와. 그리고 그 중심에 우뚝 선 가장 크고 높은
건물에서 풍기는 밥 향. 그것을 놓치면 정토행
자라 할 수 없겠지.

공양물의 짙은 향기가 늘 우리를 부처님 앞으
로 인도했었잖아. 그래, 처음 그 느낌은 저 곳
에 불이 있고, 법이 있고, 밥이 있을 거라는 확
신이 되어 내 발걸음을 재촉해. 그렇게 밥을,
아니 법을 쫓는 마음으로 탑과 건물 사이를 지
나 마침내 도착한 법당 앞에서 마음을 정갈히
하고 수줍게 인사를 올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바라본 그곳에서 내 인사를 받으신 수많은 부
처님들의 자태에 깜짝 놀라고 말지.
큰 부처님에서 작은 부처님 까지 크기 별, 선
부처님에서 누운 부처님까지 자세 별 다양한

그러면서 너무나 다른 걸모습 안으로 흐르고 있는 같음을 살며시 느낄 수 있었어.



부처님들을 뵈고 나면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부처님들이 계시는 이곳이 정토세상인가 싶기도 하고 여전히 놀라움은 가시질 않아.

또 다른 한편을 바라보면 그곳에서는 대중이 스님들께 직접 공양물을 올리고 있어. 스님들은 사람들이 집에서 손수 준비해온 요리와 생수, 과자, 음료수, 과일 같은 공양물들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져 경을 읽으시지.

대중들의 공양과 스님들의 독송은 스님들이 공양을 드시기 위해 법당에서 물러나는 사시의 끝을 잡을 무렵이야 간신히 마무리가 되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순서는 그토록 기다리던 대중공양. 스님들이 친히 남기고 가신 공양물을 내리고 그 자리에서 가족들끼리 둘러앉는 것으로 모든 준비는 완료.

이제 손가락과 젓가락을 앞세워 캄보디아 전통음식의 세계로 빠져들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명절답게 음식 가짓수도 한정식 부럽지 않고 대부분이 소화가 잘되는 고기반찬이라는 사실은 밥 맛난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이지. 고

기반찬을 통해 소승불교에 대해 풍당 빠지는 순간이라고나 할까.

그러면서 너무나 다른 걸모습 안으로 흐르고 있는 같음을 살며시 느낄 수 있었어. 수많은 부처님도, 대 놓고 공양을 받는 스님도, 법당에서 먹는 고기도 그저 방법의 차이 일 뿐, 똑같은 마음으로 행하는 감사의 기도임을 알게 된 순간 괜스레 웃음이 나더라.

그렇게 뱃속엔 밥, 가슴엔 법을 가득 채우고 법당을 빠져 나오자, 절간과 같이 조용하다는 말이 무색하게 사람들의 숨결로 야단법석이야. 한낮의 햇볕도 아랑곳 않은 아이들은 뭐가 그렇게도 좋은지 계곡물의 송사리 때 마냥 절간을 누비고, 커다란 나무 그늘 아래 삼삼오오 모여 앉은 어른신들의 이야기는 해가 저물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아.

어린이들에겐 놀이터고, 젊은이들에겐 쉼터고, 어른신들께는 이야기터인 캄보디아 절간이 황홀하게 느껴졌던 건 불교 그 자체를 넘어서 이 공간에 묻어있는 역사와 곳곳에서 스며나는 문화 그리고 그 속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일 거야.

내가 느꼈던 행복을 연일 당신 손을 잡고 함께 할 그 날을 기다리며 보고서와 사랑싸움을 벌이며 다시 가 봐야겠다. 이러다 보고서와 사랑에 빠지는 건 아닐지 모르겠어. 그건 그렇고, 지금 어디만큼 온 거야? 오고는 있는 거지? 어디 판 데로 샌 거 아니지? 보고 싶다. 어서와. 🌸

글 정훈재 | 캄보디아 JTS

“알라-후아크바르? 알라-후아크바르? 라~일라-하일랄라-?”



새벽녘 메스짓(MESJID:이슬람 사원)에서 육성으로 들려오는 아잔(AZAN:예배시간을 알리는 소리)소리가 마치 멀리 산사의 도량석 소리처럼 아스라이 들려옵니다.

안녕하세요!

여긴 서부수마트라 아잠루북바송 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곳이 지금 저희 JTS가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2009년 큰 지진으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2009년 긴급구호를 하고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역복구작업을 하고있죠.

2010년에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가구 60채를 지원하였고 2011년 올해는 유치원 5동과 관개수로 및 식수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2년째로 접어들어 첫 해의 어리버리했던 모습을 조금은 탈피하고 초보적인 인니어 정도는 제법 구사하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작년에 있었던 크고 작은 저의 일들을 회상하면 얼굴에 빙그레 미소가 떠오릅니다. 작년 감뽕땅아라는 마을에 처음 사무실을 잡을 때만해도 동네사람들과 그렇게 친해지리라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냥 본연의 임무인 부서진 집을 복구해주고 가면 그만이라는 생각뿐이었죠.

그래서 지나치면서도 주민들과 어색하게 목례 정도만 하고 지나가고 특하면 문 밖에서 기웃거리는 동네 꼬마들 쫓아내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지나갈 때 마다 항상 미스 테르라고 불러주는 마을주민들, 아랑곳 하지 않고 다시 기웃거리는 동네꼬마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 동네가, 그리고 애

들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새까만 피부에 남루한 옷의 동네꼬맹이들 어디서 놀다 왔는지 온 몸은 흙투성이에 나를 쳐다보는 호기심 어린눈들, 내가 다가가기 라도 하면 까르르 대면서 도망쳤다가 또 저 멀리서 나를 뵈히 쳐다봅니다.

정말 못 말리는 호기심 덩어리들이죠,개 중에 조금 장난기 있어 보이는 꼬마 애는 그래도 남자라고 안 도망가고 버티고 있습니다. 하는 양이 귀여워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 그제서야 굳어 있던 몸이 풀리는지 흰 이를 드러내며 씩 웃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전 바로 무장해제 되어 버립니다. 어린 아이들의 그 천진난만한 웃음을 보고 무장해제 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동네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려 지내며 그네들의 집안 대소사에도 많은 초대를 받습니다. 이렇게 이들에 대해 조금씩 알아갈수록 전에 이해하기 어려웠던 그네들의 습관이나 관습들도 이해하게 되었고 더불어 내 삶의 지평도 조금씩 넓혀져 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올해 이 지역에서 JTS가 지원하는 것은 유치원 5동과 식수개선 및 관개수로 공사입니다. 유치원은 교실 총 14간에 교무실 5칸, 화장실, 급수 및 전기시설, 운동장, 담장 및 배수로 공사, 책걸상 등 입니다.

지금은 모두들 지붕 및 벽체공사가 한창입니

여기 사람들이 조금 게으르다고 하는데 그건 우리 잣대로만 보는 겁니다. 여기는 우리만큼 잘 짜여진 시스템 하에서 일 할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다. 일반적으로여기 사람들이 조금 게으르다고 하는데 그건 우리 잣대로만 보는 겁니다. 여기는 우리만큼 잘 짜여진 시스템 하에서 일 할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농사 하나를 보더라도 4계절이 뚜렷해 때 놓치면 파종 및 수확을 못하는 한국과 달리 이 동네는 1년 365일 파종도 하고 수확도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파종을 못하면 내일 하면 되고 내일 못하면 모레 하면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생활습관이 수 천년 간 내려와 마을주민들에게 고착된 것이고 또 이 환경에선 당연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비록 바깥에선 게으르고 책임감 없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그렇지만 이 동네도 우리네 두레나 품앗이처럼 로퐁고용(ROTONG GOYONG)이라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고 그 전통이 이슬람이라는 종교틀 안에서 면면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JTS가 이 곳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은 5개 마을에서 다섯동의 유치원 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치원 공사는 2009년 대지진때의 피해를 아직 복구하지 못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금 어려운 점은 동네사람들이 품앗이를 댄다고는 하지만 워낙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지역이라 생각만큼 진도가 빨리 나가지는 않고 있다는거죠. 더군다나 기술자 임금까지 조달해야 하니 가난한 동네주민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도 부모들 입장에서는 유치원이 꼭 필요한 교육기관이기때-이 곳 교육시스템은 애들을 유치원에 보내야 이후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라갈 수 있음-나라에서 지원을 못 해주면 가건물이라도 지어 애들을 가르치려 하고 있고 그나마도 나라에서 충족시켜 주지 못하니까 자재만 대주면 스스로라도 지어 애들 교육을 책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옆으로 새는 얘기지만 사실 이 나라도 중학교까지 우리와 같은 의무교육 입니다. 하지만 나라에서 대주는 건 얼마 안되고 거의 모두 학부모 부담으로 돌아가니 말 그대로 무늬만 의무교육인거죠.

지하수는 일단 가장 필요로 하는 유치원에 설치를 하고 있고
5곳 중 3곳이 공사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한 예로 신학기 때 지급받은 교과서는 학년이 올라갈 때 반납해야만 합니다. 만약 분실하거나 심하게 파손시키면 변상해야 합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사연이 있지만 공사는 계속 꾸러지고 있고 조금씩이나마 공사가 진척되는 것을 보면 뿌듯하기도 합니다.

저 또한 자재가 너무 싼 것이 아닌 중저가 정도로 맞춰 지급하고 있으며 되도록이면 조금 더 깔끔하고 튼튼하게 지어줄 것을 항상 주문하고 있습니다. 또 매일같이 현장엘 나가지만 나갈 때 마다 소소한 문제들이 생기니 어쩌다 하루 빠지면 웬지 기분이 찝찝해 안 나갈래야 안 나갈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다보니 본의 아니게 일꾼들과도 친해지게 됐고 그들의 요구를 직접 들으니 현장의 애로사항을 더 빨리 조치할 수 있게 돼 공사진행에 도움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 지역의 30퍼센트 가량이 논농사 지역(지목상 畓) 이다 보니 농사와 관련된

지원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상류에 마닌자우 (MANINJAU)라는 제법 큰 호수도 있고 비도 제법 오건만 치수를 제대로 못해 툭하면 식수가 끊기고 아까운 농업용수도 그냥 흘러 보내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JTS가 식수개선과 농업용수사업의 일환으로 지하수 파주기와 관개수로 공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는 일단 가장 필요로 하는 유치원에 설치를 하고 있고 5곳 중 3곳이 공사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관개수로 공사는 조금 더 규모가 있는 사업이므로 유치원 공정을 봐 가며 가장 급한 락띠산똥강(TITISAN TUNGGANG)마을부터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관개수로를 필요로 하는 마을들이 아직도 더 있으니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계속 연계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 이곳에서 가끔 그네들 사는걸 보면 '참 느긋하게 산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연환

경이 너무 좋아서일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지역도 점차 산업화 되어가며 물신주의가 팽배해져 예전 농경사회의 인심이나 관습만으론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정치인들과 관료들의 부패가 너무 일상화 되어 있어 중앙정부부터 지역의 공무원들까지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것들을 빼돌려 자기들 잇속 차리기에만 급급한 실정입니다-한 예로 저희 동네도 2009년 대지진 때 외부에서 각종 구호물품들(쌀, 의류, 라면 등)이 내려왔지만 정작 주민들에게 돌아온 건 없고 모두 공무원들과 마을지도자 개인창고로 들어갔다고 합니다-그런데도 정작 주민들은 말로만 문제라고 할 뿐이지 행동으로 나서려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너무 오랫동안 이런 사회환경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일정부분 정치에 체념한 부분도 없잖아 있겠지만 그 동안 자연환경이 제법 잘 받쳐줘 굶이 뭔가를 바꾸지 않아도 최소한 굶을 걱정은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지역도 먹고 사는 문제가 점차 산업화와 정치, 사회환경에 의해 좌우될 거고 그 때 필연이 나타나게 될 대다수 주민



들의 박탈감을 생각하면 남의 일 같지가 않군요. 마치 우리 60~70년대 산업화 시대를 재방송 하는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아마 이 나라도 우리와 같이 80년대의 지난한 민주화 과정을 거쳐야 한 단계 도약해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쓸데없는 남의 나라 걱정을 해봅니다. 🌸

글 임희성 | 인도네시아 JTS

애광원 장애인 경주 나들이 내 짝꿍 이태길

한국JTS 창원지부 | 이현영



그때 나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다. 5학년인 상희의 언니가 우리 교실에 와서 전체 학생들에게 “너들 내 동생 건드리면 가만히 안 놓아둘꺼다. 딱 조심 해라. 한번만 더 상희가 울고오면 다 죽을 줄 알아 라이.” 이렇게 말했더라면 나는 상희에 대해서 잊었을 것이다. 왜냐면 자기 동생 건드리면 그렇게 험박 하는 언니나 오빠가 많았기 때문이다. 상희는 눈동자에 초점이 선명하지 않았고, 침을 흘렸고 손은 약간 구부러져있었으며 발 한 쪽을 땅에 잘 딛지를 못했다. 그래서 절뚝거리며 걸어야만 했다. 우리가 상희를 놀렸는지는 기억이 없다. 일상생활이라 기억이 없을 수도 있겠다. 언니는 보통 언니들과 달리 우리에게 험박하지 않았다. 상희가 왜 몸이 그렇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해주고(그 내용은 다른 기억과 섞여서 정확하지 않다) 우리가 상희를 이해해주고 함께 잘 놀아달라는 이야기였던 것 같다. 그 또래의 언니들에게서 처음으로 듣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이었다.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난 그때부터 내 주위에 있는 장애인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한 것 같다.

그리고 지금은 막연하게 장애아동과 비 장애아동의 통합 교육에 대해서 찬성한다. 그리고 15년 전 임신하였을 때 태교 일기를 쓰면서 나의 아이가 장애아

가 아니라면 나중에 자라서 장애우와 친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썼던 기억도 있다. 그것은 내 아이가 장애아일까봐 걱정을 많이 하였는데, 그 불안감을 잊기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정작 장애우들에 대한 봉사활동은 사실 많이 하지 않았다. 20대 초반에 1년간 시각 장애우에게 책 읽어주기를 하였고, 아줌마가 되어서는 나무젓가락 10개씩 한 묶음으로 묶으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헤아리는 연습을 함께 한 것이 전부이다. 나 하나가 몸으로 하는 봉사보다는 제도를 잘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일도 적극적으로 했나? 그냥 입으로만 자기가 봉사활동하지 않는 것에 대한 구실을 찾기위해 제도 운운했던 것이다. 또 세상의 언론들이 성공한 장애인들에 대해서 지난친 관심을 보일 때 저 한 사람이 성공한다고 장애인 전체의 형편이 나아지는 것도 아닌데 왜 저리 떠드냐고 욕했다. 저런 성공한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느니 차라리 장애우를 위한 법이나 제도 개선에 힘을 것이지 하면서 뒤에서 욕이나 하는 정도의 사람이었다. 애광원 봉사이전에는.

“..... 정토 세계를 이루겠습니다.”

JTS와 인연 맺고 나서 참 자주 하는 말이고, 또 많이 듣는 말이다. 애광원에서 생활하는 친구들과는 어떤 정토 세계를 이룰까?

손빨래 하면서, 설거지 하면서, 걸어 다니면서 계속 혼자서 상상해본다. 너무 지나친 상상이라 나 스스로도 되겠나 싶지만, 몇 백년이 지나면 가능할 것도 같다. 음 뭐냐면 장애인들이 어떤 특정 지역에, 특정 공간에 그들만 모여서(말이 모여서이지 사실 ‘격리’ 지)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비 장애인들과 함께 사는 것이다. 그러려면 돈이 아주 많이 들겠지. 모든 시설을 최대 약자인 장애인들에게 맞추어야 하고 중증 장애인들에게는 일대일의 도우미가 필요하고. 문제가 한 두 개가 아니라고 야단이겠지. 그래도 우리가 정토라고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정토라는 생각이 든다. 마야 부인이 부처를 잉태하였을 때 토끼와 사자가 함께 뛰어놀 수 있었듯이 내가 꿈꾸는 정토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과 비 장애인이 서로 가까이에서 만나고 서로 도와주고 하는 것이



애광원 장애인 경주 나들이
·2011년 10월 29일
·애광원 장애인 47명
·경주 일원



자연스러운 세상이다. 학교도 같이 다니고(교과 내용이나 승급 등등은 교육 전문가와 복지 전문가가 알아서 할 일이지요), 여러 활동들도 함께 하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다.

그런 정도 세계에 나의 몇 대 손녀가 살고 있다. 그 아이는 장애우들과 함께 살아온 경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 또 엄마 아빠랑 함께 산다. 그리고 어쩌면 그 가족 가운데는 장애우가 있을 수도 있다. 그 아이는 공교육을 받기 시작한 유치원 때부터 통합 교육을 받는다. 초등 저학년 때는 언니 오빠들이 서로 짝을 이루어 함께 활동하는 것을 보면서 자란다. 그리고 4학년이 되면 10월 29일 우리가 만난 경증 장애우들과 일대일 짝꿍을 맺는다. 늘 그러했듯이 하루에 한 시간 정도는 통합교육을 받고, 특별활동, 견학, 방과 후 체험활동 등등을 함께 한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자란다. 그러다 6학년이 되어 졸업하는 날, 우리가 나누기 하듯이 자기 반 친구들에게 아니면 또 다른 대중 앞에 자기 짝꿍에 대해서 소개한다. 그 때 그 짝꿍은 나의 짝꿍 태길씨가 그러했듯이 입에는 미소를 머금고 내 손녀의 이야기를 들을 것이다. 자기가 알아듣는 단어가 나오면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두 살짜리 아이가 그러하듯 입으로 소리도 내어보면서.

다음은 내 손녀가 사는 정도세계의 초등학교 졸업식을 흉내 내어 나의 하루 짝꿍을 소개하는 장면이다.

안녕하십니까? 10년 전만 해도 TV에서 소위 성공한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부모라고 이야기 할 때 모두 대외용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 사람들도 아주 솔직하게 말했다는 것을 저의 경험으로 압니다. 그리고 장애우 시설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장애우 들과 몸으로 부대끼면서 “처음엔 제가 도움을 준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도움을 더 많이 받아요. 여기 다녀가면 제가 더 많이 행복해요.” 그렇게 말할 때 저런 것이 어떤 느낌일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일까? 약간 의심도 하였습니다. 그 분들은 적어도 ‘내가 장애가 아니니 얼마나 다행인가?’ 를 생각하면서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 봉사하시는 어느 외국인 신부님께서 치매 할머니들께 밥을 떠드리고 그 손가락으로 또 당신 입에도 밥을 떠 넣으실 때 ‘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오늘의 제 짝꿍을 소개 하겠습니다. 나이는 33세인데, 제가 나이를 물었더니 “한 살”이라면서 아주 자신 있게 말 합니다. 그리고 처음 보았을 때는 정말 한 살처럼 눈에 붙어있는 눈곱도 엄마가 씻어주기를 기다리는 아기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휴지로 눈과 코를 닦아주고 수신기 이어폰 꽂아주면서 귀에 있는 이물질도 없애주었지만 아기처럼 침을 자주 흘릴 때는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에 순두부를 먹을 때 다른 그릇에 따로 덜어서 짝꿍에게 주었습니다. 내 아이가 어릴 때도 식혀주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냐고 위로도 했지만 그건 아니지요. 그리고 내 짝꿍이 입을 대고 먹은 생수가 헤어질 때 남았는데도 제가 버렸습니다. (짝꿍은 가방이 없었고 다른 간식은 선생님께 드렸는데 물은 괜찮다고 하셔서 제가 갖고 있었지요.) 저녁을 먹을 때는 제 아이에게 밥을 먹일 때처럼 된장도 함께 먹고 짝꿍이 수저에 밥을 뜨면 젓가락을 굳이 구분하지 않고 반찬을 얹어주려고 했습니다. 아직 그 신부님만큼은 안 되는 거지요.

짝꿍의 마음이 그러든가 말든가 밥을 먹고는 이젠 자기도 할 수 있다는 듯이 입을 아주 깨끗이 닦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여 가위모양으로 걸었는데, 우리가 언제나 대열에서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함께 걷는다고 참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 코스인 안압지에 도착하였을 때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피곤하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대답하면서 자리에 눕습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 “우리 태길이가 오늘 참 많이 밝다”고 하시면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좀 더 누워있게 하고 싶었는데 선생님 마음은 그게 아니셨나 봅니다. 안압지에서 친구들의 노래를 듣고 함께 게임을 한 것이 제일 재미있었습니다. 친구들도 아주 재미있어했습니다. 안압지에서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좀 많이 울었습니다.(글 쓰는 지금도 읊니다)이유





는 모릅니다.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내 짝꿍처럼. 내가 하늘과 단풍을 가리키면 힘들게 하늘을 보고, 법륜스님 설명에 따라 다보탑과 석가탑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보았던 내 짝꿍. 그러나 대체로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그러다 사탕 봉지가 나오면 그것을 주워서 거기에 사탕이 들어있는지 확인합니다. 흠이 많이 묻은 빈 봉지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나중에 사탕 주겠다 해놓고는 약속을 못 지켰네요.) 그때부터 바닥에 보이는 풍선 조각, 플라스틱 조각 등을 주워서 저에게 주었습니다. 엄마에게 칭찬받으려는 아이처럼. 수신기에서 법륜스님 소리가 들릴 때 아주 신기해하면서 좋아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약간은 힘들어하고 피곤해하였지만 많이 기뻐하였습니다. 콧노래도 부르고 “아싸!” “차차차!” 등 발음이 되는 단어들을 입으로 소리 내면서 기쁨을 최대한 표현하였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만이라도 이렇게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꼭 이렇게 경주 같은 먼 곳이 아니라도 말이지요.

이른 저녁을 먹고는 내 짝꿍은 이모랑 놀다가 엄마가 오면 바로 엄마에게로 가듯 내 손을 놓고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 앞에서 내가 꼭 안아줄 때도 ‘나 엄마에게 빨리 가고 싶은데 이 이모가 왜 이러시나’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리는 정확하게 우리 둘이 앉았던 맨 뒷자리 바로 앞에 앉았습니다. 내가 창가로 가서 손을 흔드는데도 잘 못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급기야 다가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도 내가 자기와 같이 안 갈 거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좀 많이 섭섭하였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겨우 하루 잠시 같이 있어놓고는 제가 참 많은 것을 원하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 지내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노래를 많이 불러주었고 나중에는 소리까지 내어서 웃어주었는데 뭘 더 이상 바라했습니까? 45년 동안 살면서 제일 공부를 많이 한 날이었습니다. ‘정토회 불교대학’ 공부는 정말 확실하게 시켜줍니다.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하게 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

JTS 북한 취약계층 지원 물품 선적식 “더 주지 못해 미안해”

글 | 편집부

9월 27일 오후 3시, 인천항 제 8부두에서 2011년 2차 대북 지원 물품 선적식이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별이 뜨거운 것이 낮엔 좀 덥겠다 싶었는데, 아니나다를까 12시가 지나가면서부터는 햇볕이 쨍쨍 숨을 곳 하나 없는 뙤은 인천항을 뜨겁게 내리쬘었습니다.

2시가 넘으면서 하나 둘 JTS 후원회원들이 왔고, 먼저 오신 분들이 기다리는 동안 볼 수 있도록 행사장에 북한 모니터링 사진전과 지원물품들이 전시해 두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진전과 물품 전시에 관심을 갖고 둘러보셨습니다.

JTS는 북한 전역 9개 시·도의 고아원, 특수학교, 양로원 등 53개 시설 12,000여명에게 식량과 의류, 겨울용품, 의약품 등 생활 전반에 필요한 물품들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올 7월에 약 8개월만에 밀가루 지원이 승인된 후, 밀가루가 북한 전국 규모로 지원되는 것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이번 지원은 두유 36만개, 이유식 10톤, 탈지분유 2톤, 전지분유 30통, 영양강화식품 33톤 등 20피트 컨테이너 50여대



분량으로, 지난 겨울 혹한과 여름의 홍수로 인해 수확량이 급감한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훌륭한 영양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영양 강화식품이 포함된 것이 눈에 띄는데요, 각종 영양이 많이 부족한 아이들을 위해 카레, 사골 등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함께 보내어 특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날 선적식에는 JTS 이사장이신 법륜 스님을 비롯하여 박지나, 김기진 두 공동대표가 함께하셨고, 양질의 물품을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도록 구입에 도움을 주신 업체들-영남제분, 후드원, 더 초록식품-에서도 참석해주셨습니다.

사회는 JTS 홍보대사인 방송인 김제동씨가 맡아주셨습니다. 특유의 입담으로 선적식의 취지를 재치있게 전달해 행사장을 웃음바다로 만들기도, 감동의 물결이 넘치게도 만들면서 진행을 잘 해주셨습니다.

행사는 동그라미 유치원 어린이들의 예쁜 율동 공연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쨍쨍 내리쬐는 햇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기 다람쥐 꼬미'라는 발랄한 노래에 맞추어 깜찍한 율동으로 장내를 훈훈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사회자 김제동씨의 말처럼 북쪽에 있는 우리 아이들도 이 아이들처럼 밝고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이신 법륜 스님과 업체 대표로 영남제분 배비롱 사장님이 인사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과 2008년도 극심한 식량난 이후로 또 다시 위기가 닥쳤다고 풀죽으로 연명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스스로 돌보기 어려운 노인들과 부모 없는 고아들에게 우리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하셨으며, 배비롱 사장님은 "밀가루는 북한 어린이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분이 될 것이라며 300톤이라는 분량은 감이 안오지만 짜장면 그릇으로 따지면 성인 기준으로 240만 그릇이 나오고 이는 12,000명으로 계산했을 때 1인당 200번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쉽게 설명해 주셔서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어 축하공연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먼저 재즈가수 김미린씨가 진심이 전해지는 올림 있는 노래를 선사해 주셨고, 뒤이어 신궁 씨가 감미로운 목소리로 노래를 들려주셨는데, JTS에서 자원활동을 하고 있는 최선희 씨가 노래에 맞추어 아름다운 몸짓으로 마음을 곁들여 주셨습니다.

진심이 담긴 소리와 진심을 전하는 몸짓에 몇몇 분은 눈물까지 닦으실 정도로 감동이 있었던 무대였습니다.

왼쪽 하단의 사진이 보이시나요?

'오늘 아침 북한 아이들도 밥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쓰여진 천입니다. 이 천을 행사 전부터 끝날때까지 들고 계셨던 분들이 있어 소개해 봅니다. 후원회원들 옆쪽에 같이 서 계셔서 아마 보신 분들이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 행사장 앞쪽에서 열심히 뛰어다니던 제게는 아주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에게 함께 북한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자는 간절한 뜻을 전하기 위해 이 천을 들고 임진각에서, 그리고 광화문에서 아름다운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스포츠라이트를 받지 않는 구석진 곳에서 묵묵히 천을 들고 계시는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워 눈물이 날 뻔 했습니다.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박 터뜨리기!

예쁘게 장식된 박이 무대 가운데로 옮겨지자, 사람들은 너나할 것없이 박 주위로 몰려들어 기대찬 눈빛으로 박이 터지길 기다렸습니다. 법륜스님과 대표님들, 초청인사분들 중심으로 아이들이 함께 줄을 잡고 잡아당기는 순간, '펑' 터졌으면 더할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박이 제대로 터지지 않아 아쉽게도 내려서 박을 열었습니다. 순간 우르르 몰려든 아이들!



과자를 한 아름 안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친구들과 서로의 것을 비교하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분들의 표정이 마냥 흐뭇해 보였습니다. '아이들아, 많이 먹어라. 그 모습만 봐도 좋구나.' 라는 듯.

오늘 실어 보낸 물품들도 북녘의 아이들에게 그런 기쁨이 되겠지요. 우리가 보낸 두유를 훌쩍 훌쩍 마시는 모습, 이유식을 먹는 갓난 아기들, 영양강화 음식에 신기해하며 좋아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아이들아, 많이 먹어라. 그 모습을 상상만 해도 좋구나.'

오늘은 북한 아이들도 아침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물이 아이들의 배고픔을 달래고, 야윈 몸을 살찌우고, 힘없이 처진 표정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한 마음으로 행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배고픈 아이들이 먹을 것을 받을 때의 그 기쁜 얼굴, 그 미소 하나를 위해 발뼌하고 뛰는 초심을 잃지 않으며 더 노력하는 JTS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



자원봉사자 인터뷰

“나눔은, 물이 흐르듯 자연스러운 것”

인터뷰 | 인도 JTS 김정준팀장

JTS : 어떻게 인도에서 자원봉사를 하시게 되었나요?

김정준 : 직장생활을 8년간 했었습니다. 직장생활 때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제3세계 구호 개발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습니다. 막연하게 나중에는 참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던 중, 직장생활에서의 회의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막연한 회의감으로 방향도 없었습니다.

30대 중반 사춘기와 같이 방향을 하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처음 동남아시아를 여행하면서 이전부터 제3세계 구호개발에 관심이 있어서 그랬는지 다양한 구경거리가 많았던 거 같아요.

캄보디아 여행을 하면서 병원시설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았습니다. 전에 다니던 직장이 CT, MRI 같은 전문 의료기기를 제작하는 회사여서 그런지 어떤 의료기기들을 구비했는지 등 병원 운영이



나 시설 운영 같은 것에 더 관심을 가졌었어요. 그러던 중 인터넷을 통해 처음 JTS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JTS를 통해 인도에 갔는데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처음에는 조금 실망했습니다. 여름방학 때라 학생들이 별로 보이지도 않고 책임자가 1명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구호사업에 의구심을 갖고 있을 때 지인분의 소개로 자아성찰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 '내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삶, 공상적인 삶이 정말 가능하겠구나,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산다면 그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자원봉사도 계속 하면서 단기봉사 프로그램에 참가해 다시 인도사업장을 살펴보고, 실무 교육을 받은 후 인도로 가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재미있게 살아보자는 생각으로 (웃음)

JTS : 인도사업장에서 봉사기간은 얼마나 되셨는지요? 어떤 일을 하셨나요?

김정준 : 7년 동안 있었습니다. 2004년 8월 15일에 인도 동게스와리로 떠났었습니다. 처음에는 인도 동게스와리 지바카 병원 책임자를 맡아서 3년 정도 일을 했고, JTS 인도 대외행정업무도 맡았는데요. 인도 정부 공무원들을 만나서 사업장 외부 행정업무 등을 하는 것입니다. 올해부터는 인도사업 전체를 맡아하고 있습니다.

JTS : 생활 하시는데 무엇이 가장 어려우셨습니까?

김정준 : 더위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인도는 혹서기가 4~6월 약 3개월 정도입니다. 그때 고온 건조의 기후 때문에 마을에서도 우물이 마르고, 핸드펌프도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동게스와리의 가뭄은 최근 3년 동안 계속 그랬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비가 조금 더 와서 농사도 잘 지을 수 있었습니다. 더위가 사람을 참 힘들게 합니다. 직접 가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마치 “출구 없는 한증막”이라고 할 정도로... (웃음)

한국에는 냉수도 있고 선풍기도 있지만 인도엔 전기가 없기 때문에 힘듭니다. 몸이 힘들어지니 마음도 힘들어집니다.

JTS : JTS가 인도에서 하는 사업방식이 다른 단체의 사업방식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보강할 점은 없나요?

김정준 : 처음 인도 방문 때 학교를 지어주는데 학교를 지을 땅도, 학교도 스스로 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마을주민 10명에서 “1가타”가 약 45평정도 인데, 1사람이 1가타 씩 총 10가타를 기부하고, 마을 출신 선생님 나무 밑에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학교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JTS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지원을 해 주지 않는데요. 즉, 자발성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JTS는 70% 도움과 인도 현지의 30%의 힘으로 만들어진 학교라서 사람들의 태도가 다르고,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학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강할 점은 아직도 현지 인력이 주체적으로 자발적으로 결합하는 부분이 조금 약합니다. 학교 교사 같은 경우는 고학년 학생이 학습지도를 해주지만 지도력이 필요한 부분에 리더의 역할을 해줄 전문인력(마을 개발과 같은 것은 별도의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이 필요한데... 전문적인 인력이 부족한 점이 보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자원봉사에 대해 이해와 공감감이 필요할 거 같아요. 이런 인력을 발굴하고 업무를 이행할 수 있게 하는 점이 보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JTS : 인도사업장의 향후 사업방향은 어떻게 되시나요??

김정준 : 학교, 병원, 마을개발 등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을 전문적인 시스템화 하면서 상당 부분의 일들을 인도 현지인 스스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며, 지속적이면서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인도 현지 인력 개발, 새로운 인도 내에 다른 지역에 지원 활동이 갈 수 있도록 새로운 지역 개척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JTS : 마지막으로 해외봉사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김정준 : 20대 젊은 사람들은 다양한 경험해보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생각만 하지 말고, 나쁜 것만 아니면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며 다양한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 걸 통해서 상당히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런게 정말 도움이 되요. (웃음)

인도소식

그리고 해외잖아요? 우리나라랑은 다른 게 많아요. 언어도 사람도 음식도 기후도 물도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다른 게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다른 게 당연하다는 사실을 받아 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해요. 또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름을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갈등의 시작은 다른 점의 이해부족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다른 점을 이해하면 새로운 해결책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나눔이란?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

모든 만물이 다 일정정도 간격을 맺고,

연관이 있어서 서로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눔이라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 같아요.

부족한 데가 있으면 다른 곳에서 채워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 해요.

나와 다른 사물들 다른 어떤 게 아니고

나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과 사물이라고 이해한다면

나눔은 당연한 것인 거 같아요.

월 도와주고, 자연히 물이 흐르듯이 있는 쪽에서

없는 쪽으로 흘러가는 게 나눔인 거 같아요.



1. 수자타 아카데미

1. “스승의 은혜는 하늘같아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 9월 5일 초등학생 소풍 & 스승의 날 행사

오늘은 즐거운 소풍날! 뒷산에 있는 티벳 절도 방문하고, 퀴즈대회와 보물찾기도 했지요. 그리고 신나게 장기자랑 시간도 가졌답니다. 친구들과 둘러앉아 맛있는 것도 먹고 오늘은 특별히 사복으로 멋도 내었지요~ 점심식사 이후에는 스승의날 행사 시작! 1년 동안 수고하신 선생님(동네에서는 형, 누나이자 학교 선배)을 위해 직접 준비한 축하공연도 하고, 조금씩 모은 돈으로 선물도 준비하였지요. 가끔 말을 안 들어 속상하게도 하지만 이럴 때는 정말이지 너무나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이랍니다.



2.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지만 그래도 긴장되요.

– 9월 12일 ~ 20일까지 중간고사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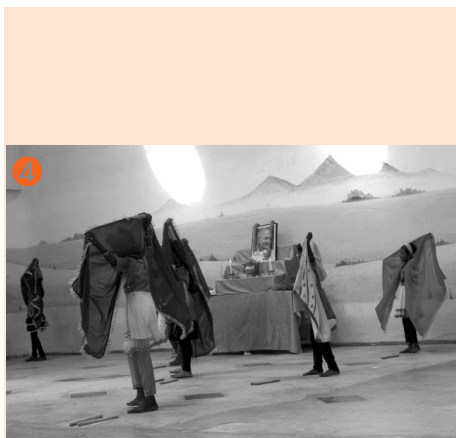
학교 다니기 가장 싫은 이유가 뭘까요? 아마 전 세계 학생들의 두려움의 대상은 바로 “시험”이 아닐까요? 우리 수자타 학생들도 시험 때가 되니까 다들 초긴장상태입니다. 평소 보지도 않던 책을 꺼내보기도 하고, 학교에 오지 않던 학생들도 약속이나 한 듯 모두 나왔지요. 선생님 눈 피해 요리조리 눈을 굴리는 학생들의 모습이 참 귀엽습니다. 다들 좋은 결과 나오길!!



3. 부처님의 자비로움 안에서 여유를 찾다.

– 9월 24일 중학생 보드가야 소풍

오전에 봉사하랴 오후에 공부하랴, 집에 가면 집안 일 도우랴. 수자타 중학생들을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랍니다. 하루쯤은 한가하게 산책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일상에서 벗어나 여유를 찾을 필요가 있겠지요? 수자타 중학생들이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보드가야로 소풍을 갔습니다. 각 나라 사찰도 방문하고 부처님 일생 영상도 한 편 보고, 보드가야 대탑에서 명상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4. 간디의 가르침대로 평등한 세상 우리가 만들께요!

– 10월 2일 간디기념식

오늘은 인도를 대표하는 위인 마하트마 간디의 탄생일입니다. 수자타 아카데미에서는 매년 마하트마 간디를 기리는 행사를 하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올해는 특히 간디의 가르침을 주제로 한 글짓기대회를 개최해 시상하기도 했습니다. 간디의 가르침대로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며 아끼는 그런 수자타 아카데미 학생들이 될 수 있겠지요?

5. 리프트 또 타고 싶어요!!

– 10월 8일 3학년 라즈기르 수학여행

설레는 마음으로 잠을 설치고 새벽부터 점심밥 챙겨 하나 둘 학교로 모입니다. 출석점검하고 이름표 달고, 주의사항도 꼼꼼히 챙겨 듣습니다. 나란다 대학(아쇼크 왕이 세웠다는 불교 대학)과 박물관을 둘러보고, 죽림정사(부처님 당시 최초의 사찰)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명상도 해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리프트. 처음에는 무서워서 다들 타지 않겠다고 했지만 막상 타고 나더니 한 번 더 타겠다고 아우성입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부모님께 드릴 기념품도 챙기는 걸 보니 3학년 아이들 벌써 다 컸습니다.



II. 마을개발 활동 소식

1. 유치원 리모델링 쉬람단 시작

오래된 유치원의 리모델링이 마을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인도 JTS 건축부 기술자들에 의해 지난 9월 15일부터 시작되었다. 오래된 유치원의 지붕 교체, 창문 보강, 담장 설치 및 부서진 곳 수리 등을 하는 이번 유치원 리모델링은 유치원 학생들의 교육환경 대폭 개선이 주목적이다. 동게스와리 근처 15개 유치원 전체의 리모델링은 올 연말에 끝날 예정이다.

2. 마을일꾼 교육 진행

지난 9월 24일 인도 JTS 마을개발부에서 진행하는 마을일꾼 교육이 61명의 마을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끝났다. 이번 교육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가난을 해결하자.”라는 모토로 마을의 어려운 점 청취 및 각 분과별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에서 마을 일꾼들은 가난 해결을 위하여 5개의 공부모임을 결성하였고, 매달 교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3. 부녀회 재봉반 수업 시작

동게스와리 부녀회 재봉반이 지난 9월 26일 첫 수업을 진행하였다. 마을개발부에서 처음하는 재봉반이라서 수강생이 6명밖에 되지 않지만 가난한 과부들로 구성된 재봉반은 이후 학생들 교복 제작 등으로 가난한 과부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4. 극빈자 구호

지난 10월 15일 동게스와리 극빈자들 식량 구호가 있었다. 15개 마을에서 선정된 44명의 극빈자들에게 쌀과 콩, 기름을 지원한 이번 극빈자 구호는 추위되기 전에 극빈자들에게 겨울옷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고, 극빈자들 대부분이 연세가 많아서 병원 검진도 할 예정이다.

캄보디아소식



1. 취학아동인구조사를 위한 회의

지난 8월 4일 언동미어 지역 양면 마을이장회의가 진행되어 라타나끼리 주 교육청 직원과 함께 캄보디아 JTS도 회의에 참여하였다. JTS는 언동미어 지역의 주민참여로 원만히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하였다. 이날 회의는 마을별 취학연령 아동인구조사에 대한 내용이 주로 논의 되었으며, 마을 이장님들께 조사에 필요한 양식과 자료를 나눠주고 설명을 끝으로 마무리 되었다. 이 자료는 추후 어린이 지원 시 표본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2. 2012년 지원마을 사업장 답사

산과 강을 끼고 있는 언동미어 지역은 22개 마을 중 3개 마을에만 학교가 운영된다. 2011년 현재 JTS는 그 중 7개 마을을 대상으로 3개의 학교를 건축을 지원 중이다. 그리고 주 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향후 5~7개 학교 건축을 추가로 지원 예정이다. 지난 9월, JTS는 대상 마을을 방문하여 일반적인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부분과 교육여건 및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도를 파악하는 일차 답사를 진행하였다.



3. 나이마을 울력 진행

10월 10, 11일 이틀간 언동미어 지역 나이마을 전체 울력이 진행되었다. 강을 건너는 동안 학교 건물 바닥 마감용 자재를 배에 싣고 내리고, 다시 차량과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산을 넘어 마을로 운반하는 길고도 어려운 작업이었지만 마을 주민들 모두가 의견을 내고 힘을 모아 아무 사고 없이 자재 운반 작업을 마칠 수 있었다. 자재를 모두 옮긴 뒤 학교 건물 주위에 난 잡초들을 정리하는 것으로 이 날 울력은 성공리에 마무리 되었다.

필리핀소식



1. 키다마 주민들의 가나안 농군 학교 훈련 프로그램 참가

키다마(민다나오 부키드논 주 다물록 시 소재) 마을 리더 6명, 다물록 시청 직원 1명, 한국인 실무자 2명과 필리핀 활동가 1명 총 10명은 지난 9월 12일부터 16일까지 필리핀 루손 섬에 위치한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훈련을 받았다. 키다마는 지역 정부에서 실시하는 고무 나무 심기 프로젝트를 성실히 수행하여 2011년 다물록 지역 우수 마을로 선정되기도 했다.

JTS는 자신들의 마을을 발전시키려는 주민들의 의지를 높이 평가해서 키다마를 JTS 모델 마을로 선정하여 마을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하였고 그 첫번째 사업으로 이번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2. 아구산 델 수르 지역의 학교 건축 현장 답사

JTS는 10월 5일부터 8일까지 아구산 델 수르 지역의 학교 건축 현장인 킬랑콕, 리보송안과 몰리 세 지역을 답사하였다.

킬랑콕은 바닥과 벽면 틀 작업을 마쳤고, 리보송안은 지붕 작업, 벽면 틀 작업, 벽면 콘크리트 작업을 마무리하였다. 몰리 역시 콘크리트 벽, 바닥, 지붕 작업을 마친 상태였다.



3. 민다나오 어린이 돕기 연주회

필리핀 마닐라에서는 10월 6일 서지나님을 비롯하여 네 명의 연주가가 민다나오의 어린이를 돕는 자선 음악회를 열었다.

2달 전부터 콘서트 준비 위원회를 만들어 티켓판매와 홍보를 열심히 진행하였다.

콘서트 당일에는 평일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350여명의 사람들이 참석하여 189,300페소 상당의 수익금을 냈다. 수익금 전액은 민다나오 어린이를 위해 소중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새나눔회원 _ 개인 · 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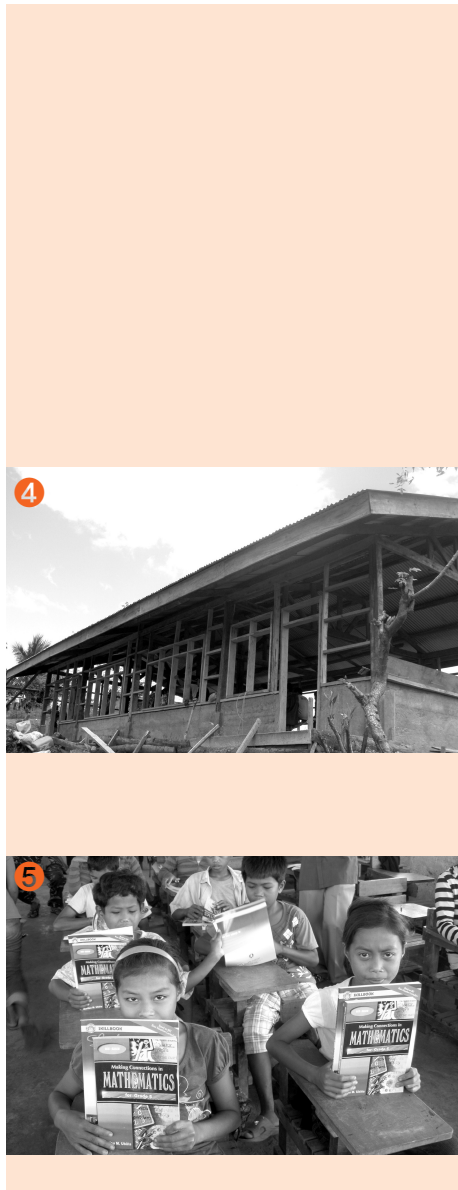
정기후원자 명단은 지면활애상 제외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2011년 8월1일-2011년 9월30일

문의전화 02-587-8995

인도 및 기타후원		김애랑	P0059691	박명덕	P0059725
간디학교작은짜이집		김영근	P0059729	박미희기연예진	
	P0052125	김영란	P0034996		P0041488
강계수	P0060000	김영희	P0059690	박상호	P0060360
강미주	P0057552	김우현	P0043595	박선희	P0051349
강수경	P0008016	김윤현	P0059501	박영주	P0028380
강수인	P0055362	김은	P0057051	박일수	P0059262
강은정	P0058416	김은영	P0009827	박정미	P0059686
강정애	P0022091	김익식	P0055825	박정현	P0059337
강태희	P0056190	김익현	P0059048	박찬선	P0058935
고경숙	P0048398	김인숙	P0042269	박현미	P0059588
고현민	P0059834	김인숙	P0059767	박혜경	P0060148
공정숙	P0059047	김정규	P0059836	방창호	P0060284
곽동희	P0060263	김정숙	P0002443	배건우	S0058241
권기환	P0058750	김정숙	P0059860	배효능	P0060423
권영애	P0054604	김정희	P0060281	백승관	P0059265
권중섭	P0042805	김종륜	P0059520	백신정	P0058941
권지연	P0059065	김종철	P0060345	비움	P0061220
권태숙	P0029325	김주연(담보)		서동학	P0059339
권태호	P0059271		P0054658	서명원	P0059726
권향연	P0041234	김주영	P0058940	서용완	P0059266
권현희	P0059837	김지예	P0060351	서춘희	P0041163
권혜영	P0059046	김철관	P0047994	성상희	P0059929
김경미	P0055398	김창희	P0060243	성예주	P0054650
김경아	P0055086	김한수	P0060158	성진경	P0030494
김도영	P0057436	김향수	P0059910	손동립	P0060261
김두철	P0059839	김현경	P0060014	손수일	P0059507
김명숙	P0059835	김현숙	P0042573	송승은	P0059180
김미송	P0057137	김효례	P0056614	송연수	P0059648
김미정	P0059964	김효순	P0058769	송해지	P0059632
김민아	P0043994	김훈미	P0060484	신미경	P0058831
김범준	P0059946	남예린	P0015571	신선옥	P0060583
김보연	P0060168	남윤숙	P0049288	신송향	P0056110
김상연	P0059276	남윤일	P0059740	신인환	P0060169
김상준	P0059274	대연혁신지구	희림김리	신정이	P0059731
김상현	P0059749	단	P0059647	안동환	P0060081
김선희	P0049357	도순옥	P0056981	안영실	P0039433
김소라	P0059684	류진곤	P0059742	안우영	P0059631
김순연	P0059344	류형주	P0042229	안치영	P0058929
김순중	P0060654	마상호	P0015213	양선옥	P0058293
김승무	P0059841	문보현	P0006463	양순애	P0060422
김승희	P0059249	문삼식	P0059261	양영신	P0058743
김애경	P0054613	빅만수	P0059353	양유정	P0057682

양정옥	P0059267	이종림	P0055495	최양자	P0053762
양준자	P0058867	이지용	P0058955	최예린	P0041808
연호순	P0028246	이지용	P0059851	최은식	P0057921
오관현	P0053676	이지현	P0059034	최은희	P0059733
오유민	P0058923	이창욱	P0060245	최일영	P0050469
원종미	P0059187	이하영	P0046563	최진경	P0059197
원자성	P0059260	이황준	P0002352	최희선	P0058476
유범균	P0059741	이현우	P0029176	한상열	P0059275
윤미성	P0059523	이혜리	P0059768	한수연	P0059587
윤미정	P0058945	이희진	P0059341	한우진	P0060251
윤정옥	P0038714	임가혜	P0058619	함양순	P0060006
이경숙	P0019457	임병국	P0060451	허노근	P0058093
이기호	P0060247	임서원	P0046141	현은지	P0059982
이문숙	P0058744	임지영	P0059999	황경수	P0060291
이미선	P0060655	임현혜	P0053981	황성민	P0059764
이보람	P0059683	장경숙	P0011811	황정연	P0059253
이보람	P0059737	장미란	P0033740		
이상석	P0060258	장준영	P0060353		
이상욱	P0043266	장춘자	P0060032	복한결연	
이상훈	P0060001	전송자	P0059188	강수인	P0055362
이성희	P0059782	전현주	P0058493	강승원	P0005529
이설희	P0059182	전행수	P0002415	강정애	P0022091
이성숙	P0048510	전희정	P0058758	강현숙	P0059732
이소영	P0059779	정돌선	P0058307	고경숙	P0048398
이수남	P0039450	정명숙	P0046903	고현민	P0059834
이순아	P0058830	정선영	P0056122	고화석	P0041984
이순주	P0028475	정연길	P0058003	공연표	P0019756
이연화	P0056138	정윤서	P0059904	곽동희	P0060263
이영미	P0052904	정은숙	P0039435	구도휘	P0058306
이옥자영가		정민영	P0059590	구점숙	P0052503
	P0060011	정주영	P0055430	권기환	P0058750
이문억	P0058142	정주하	P0059902	권영애	P0054604
이원형	P0049303	정지인	P0053830	권외자	P0022616
이유경	P0060241	정춘숙	P0059868	권이슬	P0060252
이유남	P0059744	정현대	P0059342	권정연	P0044759
이은수	P0060280	정현희	P0059190	권지연	P0059065
이은주	P0048204	정혜영	P0056825	권현희	P0059837
이일권	P0059713	주)에전농산		기아자동차정릉대리점	
이재급	P0059036		S0060023	(주)	P0059570
이재문	P0059548	주리안	P0059177	김경미	P0055398
이재원	P0059928	진현정	P0054546	김금자	P0017865
이정동	P0059512	최병주	P0059529	김기란	P0059402
이정호	P0046787	최시안	P0059681	김가현	P0059734



4. 다물록 학교 건축 현장 답사

JTS는 10월 18일부터 19일에 걸쳐 다물록 지역의 학교 건축 현장인 바삭, 기타스와 발라 세 지역을 답사하였다.

바삭은 화장실 구덩이 파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중이었고, 기타스는 이날 지붕 마무리 작업을 하고, 바닥 작업을 할 차례였다.

발라는 세 지역 중 작업 속도가 가장 빠른 곳으로 바닥을 마무리 하고, 벽면 한쪽 틀 작업을 진행중이었다.

세 지역 모두 12월까지 공사를 학교 건물을 완공하고, 교사숙소와 화장실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5. 교과서 지원

JTS는 9월 29일부터 10월 21일까지 알라원을 비롯하여 총 8개 지역 1,200여명의 학생들에게 영어, 수학책을 개별 지원하였다.

개인적으로 교과서를 처음 받아보는 아이들이 대부분인 이날 분배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교사, 리더들이 동참하여 진행하였다.

올해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교과서를 지원하여 아이들과 선생님이 보다 나은 교육의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달혜	P0057298	김재란	P0056412	박현미	P0059588
김대건	P0059738	김주영	P0058940	방창호	P0060284
김동균	P0060107	김주일	P0055011	배세복	P0057108
김동우	P0058335	김지안	P0056665	배세복	P0057108
김두철	P0059839	김창순	P0058013	백국옥	P0012378
김명숙	P0059835	김현경	P0060014	백금동	P0059416
김명옥	P0059685	김현숙	P0059591	백송의	P0050292
김명희	P0059722	김현진	P0059761	백수정	P0056468
김명희	P0005585	김희숙	P0059998	서명원	P0059726
김미선	P0059766	남예린	P0015571	서우민	P0060140
김미숙	P0060686	노정미	P0059417	서창임	P0040147
김미영	P0059533	류할상	P0042217	서현지	P0002980
김미옥	P0059838	류형주	P0042229	성두현	P0059735
김미정	P0059964	류혜수	P0059723	성미경	P0060009
김민아	P0043994	류화정	P0055975	성순진	P0055899
김민지	P0029049	문사윤	P0059273	성진경	P0030494
김상석	P0059035	문영지	P0059272	성희영	P0010984
김상연	P0059276	문정재	P0055035	손강목	P0060606
김상준	P0059274	민서윤	P0058662	손경순	P0059246
김서원	P0049861	민성욱	P0058755	손대호	P0043841
김성자	P0057141	박계숙	P0059244	손동립	P0060261
김성태	P0059495	박계숙	P0059244	손민경	P0037393
김성환	P0060658	박광복	P0059270	손민정	P0058948
김소라	P0059684	박귀민	P0043399	손민준	P0060246
김숙희	P0024622	박기수	P0059772	손수일	P0059507
김순선	P0046073	박동석	P0015064	손양숙	P0037574
김순연	P0059344	박명덕	P0059725	송승은	P0059180
김순필	P0024179	박미선	P0041284	송승은	P0059180
김승무	P0059841	박선미	P0060279	송연수	P0059648
김승희	P0059249	박영화	P0040768	송해지	P0059632
김신희	P0016061	박은경	P0053987	송해지	P0059632
김영도	P0059844	박은선	P0060034	신강희	P0010735
김원희	P0029006	박은선	P0060034	신상태	P0059630
김윤진	P0058954	박재향	P0045837	신송향	P0056110
김윤하	P0060020	박정미	P0059686	신영희	P0021691
김은경	P0059739	박정자	P0058037	신정이	P0059731
김은순	P0059196	박정현	P0059337	안동환	P0060081
김익식	P0055825	박정현	P0059337	안우영	P0059631
김재만	P0026160	박찬길	P0059192	안우영	P0059631
김정규	P0059836	박찬선	P0058935	안현숙	P0059905
김정은	P0059678	박찬선	P0058935	양춘자	P0058867
김정태	P0060304	박찬희	P0044017	염태창	P0059907
김정화	P0059218	박현미	P0059588	엄홍자	P0055356

여백순	P0005010	이재급	P0059036	정종훈	P0059891
연정아	P0059096	이정숙	P0059775	정주	P0059727
오유민	P0058923	이정숙	P0059843	정주영	P0055430
오유민	P0058923	이정숙	P0049918	정주영	P0055430
우윤주	P0059069	이주석	P0060033	정준섭	P0029868
유경숙	P0058254	이지용	P0058955	정지성	P0060294
유범균	P0059741	이지용	P0058955	정도희	P0055402
유수스님	P0011602	이지향	P0042938	정현희	P0059190
윤갑순	P0052417	이지현	P0059034	정현희	P0059190
윤미정	P0058945	이지현	P0059034	정형욱	P0060007
윤소현	P0060022	이지후	P0042144	정혜미	P0060455
윤영아	P0029669	이진명	P0058826	정혜은	P0047903
윤정아	P0015947	이진우	P0058660	조계량	P0060008
이경숙	P0019457	이찬	P0050949	조남희	P0058754
이경희	P0060038	이춘희	P0059259	조두형	P0059930
이경희	P0039871	이하영	P0046563	조상근	P0045304
이기안	P0060040	이현숙	P0058084	조원영	P0059776
이나정	P0040301	이혜진	P0021182	조은옥	P0056366
이남숙	P0025328	이효선	P0059193	조재희	P0060651
이덕산	P0059680	임미라	P0055438	조진현	P0060013
이명관	P0054296	임지영	P0059999	주경호	P0058478
이명희	P0058021	임현숙	P0056253	주리안	P0059177
이문숙	P0058744	임현혜	P0053981	지영혜	P0047878
이문숙	P0058744	임형우	P0059649	최미라	P0060152
이미나	P0044549	장준우	P0060354	최수미	P0051169
이민용	P0059589	장춘자	P0060032	최시안	P0059681
이병희	P0012839	장춘자	P0060032	최시안	P0059681
이상숙	P0059049	장태식	P0053845	최윤화	P0043923
이상희	P0059210	장혜린	P0060019	최은식	P0057921
이상호	P0046754	장희철	P0060331	최인숙	P0058711
이순아	P0058830	전미선	P0059765	최진하	P0058950
이순주	P0028475	전상수	P0002416	최희선	P0058476
이영희	P0059336	전숙련	P0058690	최희선	P0058476
이운익	P0058142	전희정	P0058758	하미숙	P0037536
이운익	P0058142	전희정	P0058758	하옥선	P0034085
이원식	P0059842	정계영	P0060262	한수연	P0059587
이유리	P0052690	정돌선	P0058307	한수연	P0059587
이윤나	P0052691	정선영	P0056122	한수진	P0051156
이윤희	P0029729	정순애	P0059945	한준희	P0060421
이은애	P0059777	정순희	P0003277	한지인	P0060485
이의희	P0048707	정연화	P0002356	한춘화	P0007848
이인희	P0058759	정이선	P0059414	하노근	P0058093
이일권	P0059713	정재남	P0004106	하노근	P0058093

현은지	P0059982	임현혜	P0053981	박종은	P0055679
홍준	P0058618	전희정	P0058758	박현숙	P0008634
		정준섭	P0029868	백은하	P0054808
		정현희	P0059190	서병임	P0047817
필리핀후원		최시안	P0059681	서당숙	P0051001
고현민	P0059834	최희선	P0058476	서예원	P0037449
곽동희	P0060263	황기태	P0053763	소숙희	P0059759
권지연	P0059065			송수경	P0045687
권향연	P0041234			신동현	P0003643
기아자동차정릉대리점				신소말	P0003779
(주)	P0059570	강민석	P0048196	안성숙	P0043653
김순연	P0059344	강준원	P0028425	여인옥	P0026342
김승무	P0059841	곽도순	P0030483	유상미	P0059845
김영매	P0002623	권경희	P0023365	윤금자	P0005041
김용미	P0028862	권정구	P0002702	윤선임	P0042089
김준수	P0059748	길효진	P0048805	윤세현	P0059763
류형주	P0042229	김명종	P0027235	윤영미	P0038184
박대용	P0054452	김미경	P0011838	이미경	P0040779
박명덕	P0059725	김봉구	P0058466	이상민	P0060010
박정미	P0059686	김선남	P0046168	이주은	P0059679
박정현	P0059337	김선호	P0050832	이주현	P0052146
박찬선	P0058935	김승태	P0007065	이한재	P0041016
박춘태	P0058652	김연지	P0055672	임숙	P0059070
박현미	P0059588	김연지	P0059024	장춘희	P0046370
백신정	P0058941	김영범	P0041435	정만열(고은별)	
서명원	P0059726	김영주	P0045248		P0052879
송해지	P0059632	김유선	P0059926	차정민	P0056338
안동환	P0060081	김은경	P0020962	최만식	P0053579
오나경	P0060157	김정수	P0010306	최익자	P0043092
오상희	P0029365	김정실	P0024098	최진경	P0059197
오영재	P0044470	김정윤	P0026032	하재남	P0016478
오유민	P0058923	김진섭	P0048370	한숙	P0007947
이규초	P0029517	김태윤	P0053887	한승엽	P0059762
이문숙	P0058744	김현송	P0055284	한승희	P0041018
이순주	P0028475	김현준	P0033476	홍성관	P0043795
이운익	P0058142	김혜진	P0048004		
이재급	P0059036	노경희	P0052645		
이지용	P0058955	미야지아키오		인도모자보건	
이지현	P0059034		P0060024	강정애	P0022091
이한재	P0041016	박미희(연예진)		고현민	P0059834
이호준	P0060798		P0041488	구도휘	P0058306
임정훈	P0059780	박선희	P0048420	권지연	P0059065
임지현	P0059840	박용길	P0044061	김도영	P0060031

김미진	P0059636	임현숙	P0056253	성미경	P0060009
김민석	P0059635	장산일	P0022084	송승은	P0059180
김민정	P0059054	장수연	P0012076	송해지	P0059632
김범준	P0060030	장진명	P0049219	안우영	P0059631
김병준	P0059634	장춘자	P0060032	오유민	P0058923
김병호	P0060250	전규성	P0058777	이명관	P0054296
김서원	P0049861	전민희	P0060424	이문숙	P0058744
김수정	P0043686	전수연	P0057415	이운익	P0058142
김순연	P0059344	전화정	P0058758	이인희	P0058759
김영익	P0057248	정명경	P0059903	이지용	P0058955
김윤현	P0059501	정주영	P0055430	이지현	P0059034
김인숙	P0045424	정준섭	P0029868	이찬	P0050949
김준홍	P0059633	정현희	P0059190	장춘자	P0060032
김혜영	P0038763	최시안	P0059681	전희정	P0058758
김효주	P0050110	최희선	P0058476	정순애	P0059945
류형주	P0042229			정주영	P0055430
박금자	P0060012			정준섭	P0029868
박대용	P0054452	결핵퇴치		정현희	P0059190
박정현	P0059337	고현민	P0059834	정혜은	P0047903
박찬선	P0058935	공지윤	P0059263	최수미	P0051169
박현미	P0059588	구도휘	P0058306	최시안	P0059681
방정자	P0019871	권지연	P0059065	최인숙	P0058711
배세복	P0057108	권현희	P0059837	최희선	P0058476
백경옥	P0059247	김경옥	P0059055	한수연	P0059587
서동현	P0059340	김민아	P0043994	허노근	P0058093
송승은	P0059180	김민지	P0029049		
송해지	P0059632	김세영	P0058474		
신영원	P0059724	김소영	P0059700		
안동환	P0060081	김순연	P0059344		
안우영	P0059631	김영희	P0059690		
오영재	P0044470	김지윤	P0060670		
오유민	P0058923	김현우	P0011929		
오윤경	P0002164	남동영	P0054297		
이문숙	P0058744	남정민	P0054075		
이보람	P0059683	류형주	P0042229		
이순아	P0058830	박계숙	P0059244		
이연화	P0029582	박은경	P0053987		
이영미	P0052904	박은선	P0060034		
이은애	P0059777	박정현	P0059337		
이정동	P0059512	박찬선	P0058935		
이정란	P0049865	박현미	P0059588		
이지현	P0059034	배세복	P0057108		
이현숙	P0058084	서창임	P0040147		

특별후원금

2011년 8월1일-2011년 9월30일

결	핵	퇴	치	임	숙	50,000	손	대	호	50,000					
강대업	150,000			장춘희	300,000		손	동	립	300,000					
남동영	100,000			정만월	50,000		손	민	경	100,000					
남정민	100,000			차정민	20,000		신	강	희	1,000,000					
박은경	300,000			최만식	500,000		신	영	찬	100,000					
서창익	50,000			최익자	20,000		신	영	희	1,000,000					
성미경	10,000			최진경	10,000		신	해	경	500,000					
이영관	100,000			하재남	200,000		심	을	택	100,000					
이찬	50,000			한 숙	50,000		심	희	자	60,860					
장광철	100,000			한승업	10,000		홍	영	복	영	기	극	왕	생	
				한승희	100,000									100,000	
				홍성관	100,000		아	행	가	요	기	센	타		
김봉구	100,000													500,000	
김선남	50,000			북	한	결	연	양	중	해				20,000	
김연희	150,000			권	류	경		25,200	여	정	희			30,000	
김영범	100,000			권민아	생	일	숙	하	오	유	미			200,000	
김영주	100,000						50,000		우	진	현			100,000	
김유선	10,000			권외자		100,000			유	경	숙			50,000	
김은경	50,000			김경미		50,000			유	승	자			1,000,000	
김정수	1,000,000			김광호		200,000			유	재	한			50,000	
김정실	100,000			김금자		82,000			윤	갑	순			204,000	
김정음	200,000			김동균		33,890			윤	영	아			30,000	
김진섭	50,000			김동원		100,000			윤	자	영			35,410	
김태운	20,000			김문희		30,000			윤	정	아			1,000,000	
김현송	100,000			김미숙		50,000			윤	혜	영			100,000	
김현준	30,000			김상국		100,000			윤	호	숙	(문	성)	140,000	
김정혜	20,000			김선정		21,520			윤	화	자			50,000	
노경희	50,000			김선호		30,000			이	경	희			23,900	
미야자키키오	139,021			김상남		100,000			이	근	오			30,000	
박미희(기연예진	12,000			김용동		100,000			이	덕	산			30,000	
박선희	100,000			김유진(덤보)		50,000			이	병	옥			56,890	
박용길	00,000			김윤아	출	생	기	념	이	상	희			10,000	
박정은	100,000					100,000			이	성	호			2,000,000	
박현숙	1,000,000			김은숙		100,000			이	승	은			1,000,000	
백은하	30,000			김이숙		100,000			이	승	재			300,000	
서병익	50,000			김정미		200,000			이	양	자			1,000,000	
서양숙	30,000			김정태		49,000			이	은	주			30,000	
소숙희	10,000			김종미		150,000			이	인	정			100,000	
송수경	50,000			김준희		1,000,000			이	정	화			50,000	
신동현	100,000			김홍임		50,000			이	제	상			82,420	
신순말	30,000			니강원		100,000			이	충	희			10,000	
안상숙	100,000			니강주		100,000			이	항	숙			25,250	
여인옥	50,000			니희원		100,000			이	혜	진			50,000	
오 철	100,000			박귀민		250,000			장	병	윤			500,000	
유상미	30,000			박미선		200,000			장	준	우			44,120	
윤금자	30,000			박별민		100,000			장	태	식			100,000	
윤선자	50,000			박수민		250,000			장	희	철			10,000	
유세현	50,000			박영자		200,000			정	지	성			210,000	
윤순애	275,650			박영준		1,000,000			정	호	연			200,000	
윤영미	260,000			박영화		100,000			조	경	신			100,000	
이미경	40,000			박지환		100,000			조	문	성			500,000	
이상민	10,000			박진화		50,000			조	은	옥			100,000	
이주은	10,000			박진하		30,000			조	재	희			100,000	
이주현	300,000			박찬영		30,000			조	진	용			100,000	
이현재	140,000			서현지		41,020			조	춘	자	권	동	희	30,000
이혜진	50,000			손강목		20,000			조	현	식			20,000	

Join Together Society 우리가 함께 여는 아름다운 세상

문의전화 02-587-8995

지현영	5,000	신안균	433,000	이주형	30,000
최응원	50,000	신한카드	42,603	이 찬	50,000
탁윤태	100,000	안가속	30,000		
한소희	40,000	안영변아선원	484,670	마리JTS 9월 후원	
한수진	10,000	안영실	118,030	시애틀정보회	\$841,00
한승협	50,000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주상효	\$75,00
한지인	22,300	(주)	13,000	김미경	\$100,00
허대영	10,000	연호순	22,230	시애틀정보회	\$309,00
홍동욱	100,000	유재한	20,000	Kyu Hee Han	
황원주	1,059,150	윤화자	50,000		\$110,00
		이동현	50,000	Austine정보법회	
인도 및 기타후원		이래원영가극락왕생			\$100,00
(주)블루라이팅			1,000,000	김지원	\$500,00
	700,000	이마선	10,000	박경배	\$70,00
LA정보회	300,000	이미화	1,000,000	Lauren carre	\$70,00
간디학교작은파이집		이성숙	200,000	SW정보회	\$633,77
	36,500	이수남	56,820	फलगुन 교도	\$1,000,00
강상희	160,000	이옥자영가극락왕생		현영진	\$101.56
강현 생일축하	100,000		100,000	고창미	\$100,00
권충섭	1,000,000	이유연	100,000	정은주	\$5,00
권태숙	50,000	이윤정	100,000	돼지저금통	\$37,76
김경미	50,000	이정호	35,310	이주희	\$130,00
김경태생일축하		이지이	1,000,000	책손빌 순회법회JTS	
	100,000	이현우	100,000		\$210,00
김미옥	100,000	임병국	50,000	Nam Soon Heo	
김마침	50,000	장성호	50,000		\$50,00
김보연	10,000	장준영	44,120	장성희	\$20,00
김성윤	60,770	장진영	60,000	이동근	\$70,00
김수연	30,000	정연길	30,000	Sunghyun Jung &	
김순중	50,000	정은숙	47,810	Michung Yi	\$30,00
김용동	100,000	정정희	50,000	Sock H Park	\$100,00
김정미	99,000	정지인	210,000	전정숙(8월 옥수스퀘	
김정숙 인도집짓기		정도희	224,470	인)	\$500,00
	3,000,000	조문성	500,000	권오석&권영미(옥수스퀘	
김정철	100,000	조은순	20,000	페인)	\$200,00
김철만	32,150	조은숙	50,000	뉴욕,뉴저지순회법회	
김훈미	50,000	진명배	50,000		\$675.50
김희소영가극락왕생		진현정	50,000	뉴저지	\$144
	2,000,000	천수만	20,240	뉴욕	\$531.50
남윤숙	47,600	천영희	13,430	Sang Ok Pae	
노태곤	23,480	최사원	300,000	임선희	\$20,00
동북아대장장수익금		최양자	50,000	백승영	
	104,650	최애린	100,000	Sung key Minn&	
동북아대장장수익금		탁수연	100,000	Haejoo Minn	
	172루피	하효남	50,000	Yong Il & Yongok	
민덕수행법회	171,000	한경이	50,000	Park	
박만수	50,000	해피빈	612,500	Jung H Son	
박상호	20,000			김명	
박영자	120,000	필 리 핀 후 원		YumYum Ice Cream	
박용수영가극락왕생		이원형	5,000	Store	
	1,000,000	김선호	30,000	무주상	
서준희	21,480	황기태	50,000		\$69,00
손대호	50,000				
손동립	200,000	인 도 모 자 보 건			
송명숙	200,000	권홍주	20,000		
송영숙	50,000	김인숙	500,000		

나눔저금통 현황

2011년 08월 01일 ~ 2011년 09월 30일

➡ **경주**
 돼지저금통 45,550 돼지저금통 20,200

➡ **광주**
 김선희 60,450 무명 20,870 비아신헌 43,760 빛고을시민생협 43,400 빛고을시민생협카페 42,600 윤남초장현희선생님 23,400 윤림중최서원 13,870 이진호 39,890 일식집(도화) 19,920 장성우채국 18,600 제75군사우채국 28,170 DC홈바트 70,570

➡ **대구**
 권미리 32,650 김수라 13,350 김수라 20,850 김영배 28,090 김옥자 20,230 김주용 23,850 김하연 32,430 김호근 53,040 농공농협 15,000 대구수성우채국 41,310 무명 29,370 무명 40,070 무명 35,160 박길태 23,500 북삼농협 23,200 소망어린이(풀잎햇살반)돼지저금통 19,400 소망어린이집 57,840 소망어린이집(나무반) 24,460 수성우채국 56,330 신미경 36,000 심정용 18,480 안춘옥 20,030 외국환전 5,230 윤여영 15,660 이명희 3,260 이순인 35,570 장선옥 32,800 정보라식3개 148,500 차용백2개 63,640 최봉관 49,850 최은옥 6,500 최정은 16,060 허현영 5,610 홍도연3개 64,340 홍정숙 53,480 황승용 8,500

➡ **대전**
 김기일 20,150 김낙춘 76,560 김동희 29,270 박진아,박정근 30,090 보부상마트 10,390 보부상마트 13,430 양해림 30,800 오승연 8,490 전태수 12,260

➡ **마산**
 거제포인트 50,060 고태산 18,460 무명 17,980 시민의원 11,440 안인숙 14,740 우리마트 166,800 원마트 42,990 제일내과 43,820 코오롱피자빙고 42,350 호계우리마트 20,470

➡ **서울**
 89차일개4개 393,630 (강추근 34,900 김운군 26,680 무명 22,300 무명 51,200 무명 17,630 박정미 42,460 심정훈 20,100 오승연 17,320 오승연 6,090 이소문 34,250 이재순 42,000 이형우783차 9,500 최영준784차 13,990 한동식 54,310) 가운우채국 20,000 강동농협고객 52,960 강문보 16,100 강서공합동수행법회 15,050 강연순 81,500 강희석35,350 갤러리삼마라 58,600 고은태 15,580 공양행 18,560 구분서 20,280 권수영 31,110 김도겸 43,120 김미선 9,500 김선이 38,174 김선희 66,590 김성운 27,000 김소현 41,160 김슬리나 52,150 김승현 42,670 김민준 27,000 김주임 17,360 김준서 42,050 김지성 17,860 김현서 59,360 김현서 37,100 나윤주 100 노은미 61,300 무명 19,530 무명 16,220 무명 20,930 무명 13,330 무명 17,440 무명 8,070 무명 15,340 무명 26,210 무명 2,570 무명 25,550 무명 18,010 무명 10,490 무명 29,560 무명 34,070 무명 17,800 무명 15,630 무명 22,570 무명 11,700 무명 23,900 무명 20,480 무명 16,100 무명 10,220 무명 12,070 무명 127,140 무명(원주점) 15,270 문경16개 456,200 (김용규 38,330 김의현 35,000 무명 30,070 무명 27,880 무명 33,100 박윤희 46,070 박은희 18,950 서희원 8,650 송재숙 24,600 양영신 7,910 임진우 25,200 전상현 60,500 전태보 25,160 조기현 25,020 최문희 40,000 최익병 9,760) 박광문 10,980 박병 현 25,840 박영열 37,360 박정인 23,550 박현근 28,230 북한어린이들이 43,430 사랑약국 24,730 삼각산고등학교 71,550 삼각산고등학교7개 99,040 (1학년4반 21,540 1학년5반 16,000 1학년6반 15,500 1학년7반 4,400 1학년8반 7,950 1학년9반 13,450 1학년10반 20,200) 서미화 68,740 서울대인류학과대학원 30,030 서초1동우채국 45,660 성금 970 순영희 22,600 송병호 8,740 송유빈 41,880 송경애 38,130 신상원 95,100 신성우 53,780 신성우 34,980 신성우 63,150 신희찬 27,400 안종혁 10,000 안종국 32,420 안종국

문의전화 02-587-8995

30,230 안중국 32,220 안중국 36,500 안중국 36,410 안중국 32,000 안중국 36,650 양소연 26,450 여은애 22,840 오의현 100,530 왕선희 28,280 육해경 63,950 은평법담10개 403,810 기량차경속 28,870 김서연 25,190 김숙자 22,600 무명 179,730 박규태 21,300 박명숙 41,060 손현미 17,900 이윤희 23,850 조정숙 36,270 최란 7,040 이대성 17,380 이덕기 20,240 이덕기 50,810 이미애 35,950 이상현 23,980 이상심 24,500 이수현 21,520 이영재 12,520 이인숙 49,800 이자영 52,130 이정호 10,550 이현숙 23,850 인천고제금 통 147,070 인천황성식외 65,800 잠신고3-4 66,000 장경숙 31,780 장경숙 22,310 장선경 25,600 장유경 15,520 장준분 33,710 장준태 28,450 장춘희 36,510 적량초등학교5학년 102,000 정민경 79,700 정백기 68,550 정영선 23,120 정정희 92,250 조경아 26,520 조경아 33,320 조경희 28,860 조미숙 19,310 종산외고 23,640 종산중윤순애1,951,450 종산중학교 966,400 종산중학교 추가 520 최수정 30,870 최수정 72,120 최윤정 34,960 탐앤탐스청담엠넷집 189,510 팽택중앙동우체국 22,000 팽택중앙동우체국 21,660 허정실 22,690 형정희 44,980 홍경미 34,090 GS25 29,810

→ **울산**

김다미 2,450 김수경 2,070 김시영 5,950 김자영 7,000 김오윤 53,970 김은지 3,970 무명 18,770 무명 40,400 박성자 29,660 박예솔 18,540 백종원 11,040 성 안고기백화점 2,960 양호영 35,420 울산스쿨빌비 19,280 울산축협 29,340 이상원 20,540 이승원 42,970 이승원 31,330 이여천 6,050 이운성 21,380 정아라 1,300 정정영 50,080 제일은행남자점 20,730 조동원 32,250 하태균 28,410 현대하이코스미용실 49,100

→ **정읍**

박영길 28,580 채범석 31,790

→ **제천**

무명 6,760 전용우 7,490 전용환 3,770

→ **창원**

무명 27,380 신순이 48,760 이영석 21,420

→ **청주**

기홍진 37,530 박준자 37,280 송은희 7,610 신미순 19,690 이혜선 65,890 최용석 32,690 최희숙 26,870

→ **해운대**

강소담 8,200 권정숙 24,680 무명 61,790 박선우,정우,주영 22,180 박선희 33,240 이서영 20,600 정영순 33,300 정현숙 29,500

| 거리 모금 현황 |

2011년 08월 01일부터 2011년 09월 30일까지

광주과학고등학교 185,430 구미 454,510 남양주 117,000 대구 2,488,430 대전 287,960 동래 155,460 마산 712,350 분당 30,080 서울 797,400 선적식시모금 61,000 수원 171,630 신천중학교2학년1반 100,000 여정화 426,000 연수고등학교 154,750 울산 322,650 인천 300,180 제천고등학교 390,550 창원 602,030 평택 98,460 포항 284,820 해운대 346,940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즐거운 자원활동



비우는 삶
+ 재능, 특기
+ 시간



인터넷 접수
+ 인터뷰
+ 활동 교육



JTS 자원 활동을
시작합니다.

비우는 삶
내 마음을 비우면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고 내 재능, 특기, 시간으로 돕습니다.
나를 비우면 비울수록 따뜻한 보람이 채워집니다.

해외 자원활동
장기봉사활동으로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분야 건축, 농사, 회계, 태권도, 예능교육, 의료, 언어 등

국내 자원활동
한시간 국내봉사가 아이들의 연필, 가방, 교실이 됩니다.
지원 봉사 번역, 녹취, 홈페이지 관리, 영상 제작 및 편집 등 활동 봉사 물품정리, 거리캠페인, 나눔저금통 관리 등

우리가 행복해지는 고마운 나눔회원



소박한 삶
+ 원하는 나눔
기금 선택



우편 신청
&
온라인 신청



JTS 나눔 회원이
되었습니다.

심승현 작가님의 '파페포포 레인보우'는
다음포털 만화에 연재중입니다.



JTS희망나눔미 파페와 포포입니다

소박한 삶
적게 쓰고 적게 가지는 소박한 생활로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JTS나눔 기금 02-587-8995

지원하고 싶은 기금을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 어린이 돕기 결핵퇴치 모자보건 북한개발 해외긴급구호

참여하신 분들은 전화로 본인의 기부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눔회원이 되신 분들은 JTS 우편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JTS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나눔
해피빈나눔 happylog.naver.com/jtstogether 에서 참여하세요
나눔저금통 작은 동전도 나누면 큰 힘이 됩니다.

투명한 기금 운영 알기
여러분들의 소중한 기금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는 JTS재정을 공개합니다.
연 2회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통해 기금 운영과 지원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